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7. 6. 13.(화) 14:00

▣ 장 소 : 대전 리베라 호텔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석대권, 장석하, 박선희, 홍형순, 남해경, 김두규, 이정수, 황선철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진성이씨 종택 지정	
2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지정	
3	안동 하회마을 탈놀이전수관 담장 · 판문 설치 등	
4	안동 하회마을 현수막 게시대 설치	
5	안동 하회마을 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	안동 하회마을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7	영주 무섬마을 내 아도서숙 주변정비 공사	
8	제주 성읍마을 내 회전교차로 설치	
9	고성 왕곡마을 주변 통신용 전신주 설치	
10	영주 무섬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1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12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7동) 신축	
13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14	괴산 송병일 고택 주변 창고 증축	
15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축사 신축	
16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전통마을 관광자원화사업	
17	봉화 만산고택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18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5동 신축	
19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7동 신축	
20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1	함양 일두고택 주변 하천 돌담난간 설치	

목 차

22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검토사항】		
23	봉화 서설당 지정 검토	
【보고사항】		
24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무섬관광지 시공방법 변경(변경허가)	
25	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6	아산 용궁댁 주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7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28	강진 영랑생가 주변 공동주택(2동) 신축(변경허가)	

안건번호 민속 2017-03-01

1. 안동 진성이씨 종택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안동 진성이씨 종택」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2호「안동 주하동 경류정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제2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17.4.11.) 검토 후 「안동 진성이씨 종택」으로 지정예고('17.4.27.~5.27.)하였고,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안동 진성이씨 종택(安東 眞城李氏 宗宅)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주하리 634)

○ 소유자 : ○○○

○ 수량 : 일곽(건물 6동, 토지 2,856㎡<2필지>)

- 건축물 지정 : 6동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진성이씨 종택	본채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9칸×측면7칸, 只자형	174.49㎡	○○○
	경류정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31.74㎡	
	사당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21.76㎡	
	행랑채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6칸×측면1칸, 一자형	35.75㎡	
	방앗간채 (초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5칸, 一자형	17.25㎡	
	내삼문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7.31㎡	
계				288.30㎡	

- 토지 지정 면적 : 2,856㎡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대	2,446.00	1,919.73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5	대	416.00	410.00	○○○
계			2,856.00	2,329.73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몸채를 18세기 이전, 별당을 16세기 중반에 건립한 집으로 ⅰ)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른 엄격한 내외 공간의 배치 및 평면 형식과 사당의 독립적 영역 구성, 별당·뚝향나무·행랑채를 담장과 대문간 없이 배치한 특별한 구성, ⅱ)비교적 이른 시기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편청식 안대청의 드문 모습, ⅲ)18세기 이전에 주로 나타난 홀림기단과 서산각 지붕, 17세기 이후부터 돌출한 사랑공간 지붕의 높은 시인성, ⅳ)17세기 사대부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읽게 하는 사랑과 별당 공간의 높은 품격과 주거 민속 등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 이러한 주촌종택은 18세기 전후의 사대부 주거건축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주거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진성이씨 주촌 종택의 실질적으로 진성이씨의 대종가이다. 특히,종택의 건립과 관련한 문서들이 있어 종택 건립과 관련 여러 저보를 얻을 수 있다. 봉선록(奉先錄)과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 등에서 확인할 수있다. 특히, 1929년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擇日記)”가 전한다. 이 일기에 상량에 대한 전체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정도 모든 가족들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참조하여 잡았다. 중수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같은 일정 중에서도 가옥해체나 상량 중 중요한 역사(役事)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가옥의 짓고 중수하는지를 알 있고, 집을 건립하는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종택 앞에는 4세 이정은 1431년 영변 판관을 지냈고, 이 때 영변에서 가지고 와 심었다는 뚝향나무가 천년기념물 31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종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 혼례. 상례, 제례문화를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전승되고 있다. 진성이씨 종가가 주촌에 터 잡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력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중요 성씨로는 의성김씨. 풍산유씨, 봉화금씨, 풍산김씨, 영덕의 영해 신씨, 무안박씨 등의 집안이다. 종가에 남아 있는 혼인 관련 문서를 보면 연길단자, 혼수함, 혼서지, 족두리, 댕기, 혼례홀기, 신행택일기, 혼수물목 등을 통하여 집안의 혼례문화를 볼 수 있다. 상장례에 관한 자료는 안장택일기(安葬擇日記), 만장(輓章), 복차(服次), 종복(宗服), 제문(祭文), 1986년 지낸 길사(吉祀)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이런 자료들은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 그 절차를 잘 지킨 하나의 증거들이다.

○ 고문서 및 전적 2,913점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는 1430년대부터 1970년까지 자료로서 조선전기부터 근ㆍ현대까지 생활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정회(庭獪, 1542-1612)의 송간일기는 1577년에서 1612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거의 매일 작성하였다. 이 일기는 당시 집안 일상생활사와 당시 의날씨, 지역사회의 일상사까지 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다. 이외에 2세 송안군 이지수가 썼다는 관모(고려말 관모 추정)을 비롯하여 많은 의식주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진성이씨 주촌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본채와 별당 모두 오랜 세월동안 대대적인 중수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여 지나, 초창 연대가 조선중기 이전 즉, 임진왜란 이전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 문중 내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인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宅日記)' 가 주촌종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종택의 건축적 가치

를 제고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ㅇ 주촌종택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ㅁ자형의 구성방식을 보이나 ㅁ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 ㅇ 경류정은 주촌종택의 별당건축으로 건립연대가 조선중기 이전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며 또한 가구구조나 부재의 치목수법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주촌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ㅇ 따라서 창건연대, 평면 및 가구구성, 부재 치목기법, 보존상태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참고사항(안동시 의견)

- ㅇ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진성이씨(송안군)의 '대종가'로 14세기에 문신 송안군 이자수에 의해 현 위치인 두루마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ㅇ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와룡면 주하리에 위치한 조선중기 이후 영남지방의 사족주택으로 '只'자형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랑채 누마루의 기단을 높게 쌓고 팔작지붕을 올림으로써 사대부의 권위를 한층 강조하고, 본채로 통하는 중문 우측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사랑채를 별도로 마련해 둔 점도 사대부가로서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다.
- ㅇ 별당인 '경류정'은 세종 때 영변판관으로 영변진寧邊鎭을 쌓은바 있는 이정李禎의 현손인 이연李演이 1492년(성종 23)에 지었다고 전해지며, 조선중기 건축양식의 중후한 고격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 '경류정'이라는 집 이름은 후손인 퇴계 이황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ㅇ 이 종택은 규모와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으며, 경류정은 고격을 풍기는 중후한 구조양식을 갖고 있고 조선시대 안동지역의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는 종택으로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종택의 모습과 생활양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바. 검토의견

- ㅇ 지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는 상황으로서 "안동 진성이씨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安東 眞城李氏 周村宗宅)

4.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1]은 마을의 동편 끝에 배산 하여 홀로 남동향으로 앉아 있다. 주촌은 와룡면의 진산인 금학산(琴鶴山) 오로봉(五老峰)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린 야산을 주산으로 삼고서 비교적 먼 거리의 산줄기를 청룡과 백호[2]로 삼은 좁고 긴 마을로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 마을 앞의 안산은 반달형으로 보름달과 달리 반달은 새로 채워지는 달로 약동과 번영의 의미를 지닌바 개기 이후 지금껏 번성하고 있다. 주촌의 행정명은 주하리(周下里)로 이로촌(二老村)·두루로도 불리어 진다.[3]

○ 진성이씨는 퇴계 이황(李滉) 등 명현을 배출한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종택은 이황의 큰 집으로 진선이씨 중에서는 대종가에 해당한다. 600여 년 동안 진성이씨 일문의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온 이 마을에는 현재 종택을 비롯하여 25호 정도가 남아 있다.

○ 한편 북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물한리에 진성이씨 시조 이석(李碩)의 아들이자 이황의 5대조인 이자수(李子脩)의 유덕을 추모하고 후손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건립한 작산정사(鵲山精舍) 및 가창재사(可倉齋舍)[4]가 자리 잡고 있다.

5. **연혁 유래 및 특징**

○ 처음 지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봉선록(奉先錄)』[5]에 의하면 이운후(李云候)가 정통년간(正統年間, 1436~1449)에 안동부의 서쪽 마라촌에서 주촌으로 이주해 와

---

1)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2호(1987년 지정).

2) 청룡 : 망운산(望芸山) 석계봉(石溪峰), 백호 : 마애산(磨厓山)

3) 와룡면지(1933년)에 「옛 명칭은 이로촌인데, 선산부사를 역임한 두 노인(이정 : 진성인, 이유선 : 영춘인)이 한 마을에서 함께 노후를 보낸 것에 연유한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음.현재 영춘(永春) 이씨는 윗마을 마창골에 세거하고 있음.

4)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21호[창건 1480년(성종 11), 이건 1715년(숙종 41), 1980년 지정]

5) 진성이씨 주촌파의 내력 및 선대 사적 관련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 가계 기록 문서임.

서 종가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건립 후 7세손 이훈(李壎, 1467~1538)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후의 건축연혁은 1929년 중수한 기록이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擇日記)』에 있고 이를 입증하는 명문[6] 망와가 지붕에 남아 있다.

○ 별당(慶流亭)은 8세손 이연(李演, 1492~1561)이 만년에 종가 앞산 바깥쪽에 지은 것을 10세손 이정회(李庭檜, 1542~1612)가 관리가 어려워 지금의 자리로 이건했다. 퇴계가 지은 정자의 시판(時板)의 연도가 1556년인 것으로 보아 이때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랑채는 원래 초가이던 것을 50년 전에 와가로 새로 고쳐짓고, 방앗간채는 20년 전에 초가로 복원했다.

< 배치 >

○ 맨 앞쪽에 一자형 행랑채가 사랑 공간의 전방 조망에 장해가 되지 않게 우측으로 빗겨 배치되어 있고 그 뒤쪽에 양측 날개채를 둔 완전口자형 몸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몸채의 좌측에는 별당(경류정)이, 우측에는 방앗간채가 있다. 방앗간과 안채 부엌 사이에 장독대가 있다. 사당은 몸채 뒤편 좌측 높은 곳에 별곽을 이루며 몸채와 달리 의도적으로 남향으로 배치하여 상위공간의 신성한 장소성을 갖게 하였다.[7] 별당 마당 좌측과 행랑채 우측 언덕에는 측간이 있다.

○ 몸채의 동편 날개채에서 방앗간채, 안대청 뒤편 모서리에서 사당 담장 사이에는 내외담을 설치하여 여성 전용 공간을 이루게 했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공간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한 내외담의 남녀 분리와 사당의 독립적 영역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명확한 공간 구분은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배치 유형으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별당 앞마당에 있는 뚝향나무[8]는 아주 희귀한 수종으로 그 수형이 독특하여 눈길을 강하게 끌면서 별당을 돋보이게 한다. 이 향나무는 주촌 종가의 표상이자 문중의 보목으로 후계목을 좌측편 담장 밖에 두 그루를 심어 놓았다.

○ 한편 뚝향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 앞에 담장을 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서 별도의 출입 대문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6) 기사사월중건(己巳四月重建)

7) 경주 양동 무첨당(보물 제411호), 안동 하회 충효당(보물 제414호), 안동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185호), 봉화 경암헌 고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53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음.

8) 1974년 「경상북도 나무」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314호(1982년 지정)임.
4세손 이정이 여진의 침공을 막기 위한 평북도 영변진(寧邊鎭) 설치와 약산성(藥山成) 증축의 대 역사 감독을 마치고 귀향하면서 약산 향나무 3주를 옮겨와 한 그루는 이 종가에 나머지는 3자 계양(繼陽)의 온혜(溫惠) 종가와 사위 박근속(朴謹孫) 집에 식수하였으나 각각 폭설 동사와 임란 때 삭근됐다. 영해 청류정에 이접한 한 그루가 생존하고 있다. 1433년(세종 17) 북벌 이후 10년생 이상을 이식했다고 가정 할 때 수령은 약 580~6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높이 3.2m, 둘레 2.5m, 가지 길이 사방 평균 12m 정도로 수관의 점유면적이 약 50평 정도다.

< 몸채 >

○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ㅁ형을 이루며 안마당을 에워싸고 있다. 4칸통 안대청이 좌측에 크게 자리 잡고 그 우측으로 안방과 부엌이 배열되어 있다. 안방 앞에는 툇마루 공간을 두고 부엌 우측에는 수장 공간을 두었다. 안대청 앞으로 이어진 상방·상방 부엌·고방이 좌익사를, 부엌 앞으로는 통래간·고방·중방(새댁방)·중방 부엌이 뻗어서 우 익사를 이루고 있다. 안방 부엌·상방·상방 부엌·중방 부엌 위에는 다락을 두었다.

○ 안대청은 일반적으로 안방과 상방(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안채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비해 이 집은 안방 측면에 있다. 이런 편청식 안대청은 경북지역 몇 집[9]과 경기도에 하나 정도 보이는 흔치 모습일 뿐 아니라 대체로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 사랑공간은 몸채 정면 좌측에 돌출시켜 누처럼 꾸미고 좌로부터 못방(1×1.5칸)·사랑마루방(1×1.5칸)·사랑방(2×1칸) 순으로 배열하고 앞쪽에 툇마루를 두었다. 사랑방 좌측칸 뒤편 좌익사 고방 사이에는 반 칸 규모의 마루는 사랑방과 사랑마루에서 안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다. 내외법에 따라 안채와 상호 직시되지 않도록 한 은밀하게 꾸민 공간으로 내외담과 함께 남녀 공간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읽게 한다. 못방 배면에는 안쪽으로, 사랑방 우측면에는 바깥으로 머리벽장이 마련되어 있다. 못방 좌측과 사랑방 우측칸 앞에는 쪽마루를 설치하고, 툇마루 헌함은 교란으로 장식하여 사랑공간의 격조를 높였다. 한편 난간과 창호에 사용한 정교하고 섬세한 쇠장석의 뛰어남은 이 집의 품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사랑공간 우측으로는 중문간·마구간·고방·못방(동쪽방)·중마루방이 차례로 놓여 있다. 마구간 위에는 유상고가, 중마루방 배면에는 옛 벽장 흔적이 남아 있다. 못방과 중마루방 앞에는 쪽마루를 두고 중마루방은 여느 마루와는 달리 흙벽으로 꾸민 흔치 않은 마루방이다.

○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몸채 전면은 높게 쌓고 그 뒤쪽 양 익사와 안채는 높이에 따라 흘림 기단을 쌓았는데 현재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다. 흘림 기단은 18세기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 누처럼 꾸민 사랑공간의 정면 기둥 4본의 초석만 원형정평 초석을, 나머지는 덤벙 초석을 놓았는데, 안채 정면 기둥의 아주 큰 초석이 눈에 띈다.

○ 기둥은 공간의 위상을 고려하여 원주를 사용한 사랑채 외진주 이외는 모두 네모기둥인데, 사랑채 정면 원주의 하부 기둥은 육각형으로 돋보이게 했다. 기둥 상부는 안채와 사랑채 정면은 보아지로 받친 주두를 놓고 주간을 소로로 수장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이외는 장혀 수장 민도리집으로 꾸몄다. 상부가구는 안채 본채와 사랑공간은 5량 가, 익사는 3량 가이다.

---

9) 안동 성성재 종택 : 16세기 후반 경 건립, 의성김씨 학봉종택 : 16세기 후반 건립, 1762년 이건, 경북 기념물 제112호, 경북 민속문화재 제159호, 안동 전주류씨 삼산종택 : 1750년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제36호, 구미 망천동 임당댁 : 1775년 건립(1987년 임하댐 건설로 현재 위치로 이건), 경북 민속문화재 제59호, 의성 운곡당 : 1800년 초 건립, 경북 민속문화재 제165호, 궁집 : 18세기 후반 경 건립,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 안대청 상부 좌측에 측면 도리를 받치면서 휘어 올라 대들보에 걸친 충량은 보기 드문 형상으로 눈길을 강하게 끈다. 대량 위에는 동자형동자주를 세우고, 종보 위에는 제형 판대공이 종도리를 받고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로 구성하고 전체적으로는 서산각 지붕에 사랑채 지붕이 솟아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산각 지붕도 흘림기단과 함께 18세기 이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공간인 사랑채의 지붕을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솟아서 높은 시인성을 갖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부터다. 한편 내림마루와 좌·우익사의 용마루가 연결되도록 지붕을 얹어 정침 배면 양단의 지붕을 반박공지붕이 되게 한 모습은 경북지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 이러한 몸채의 구조양식으로 보아 16세기 후반 중수 이후 20세기 초반 사이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시기는 18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 별당(경류정) >

○ 별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좌측 2칸에 4칸통 마루방을 두고 우측 1칸에 온돌방을 배열하였다. 정면과 우측면에 쪽마루를 시설하고 안상 모양으로 뚫은 평난간을 설치하여 별당의 품격을 높였다. 마루방의 정면은 재사벽에 두 짝 굽널띠살문을, 좌·우측면은 중방을 기준으로 상·하에 각각 재사벽과 판벽을 치고 두 짝 띠장널창을 달았다. 마루방과 온돌방 사이에는 좌·우측에 각각 외여닫이 굽널띠살문과 4분합미서기불발기문이 설치되어 있다. 미서기문은 원래 4분합 들문 이었는데 근년에 지금처럼 교체했다. 우측 벽면의 두 창호는 알 수 없는 시기에 지금처럼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들기창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창호형식이고 두 창호의 문얼굴과 벽선 구성이 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기단은 정면에는 큰 방형의 장대석을 세워 쌓고 나머지는 자연석 기단을 모르타르로 마감하였다. 정면 기단은 처마 길이보다 내밀기가 길고 이형적인 것으로 보아 후설 한 것이라 여겨진다. 초석은 모두 막돌 덤벙 초석이고, 기둥은 내진주 1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주이다. 기둥 상부는 물익공으로 온돌방 배면을 제외한 주간 모두에 역 마름모형 화반을 두었다. 안초공처럼 보이는 익공의 무리뭉실한 초각, 연화두형과 연봉으로 조식한 첨차, 창방 뺄목의 궁글린 초각의 꾸밈새는 이 집의 높은 격조를 읽게 한다. 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에 삼분변작하여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웠다. 동자주는 익공과 행공을 두고 대공에는 첨차형 부재를 더해 장식미를 한층 부각했다. 좌측 부 충량은 대량 위에 걸고 동자주 없이 외기틀을 낮게 가구하여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양측 모서리는 선자연으로 꾸몄다.

○ 정면 어칸 처마 밑에는 퇴계 친필 '경류정(慶流亭)'[10] 현판, 내부 종보에는 퇴계의 '제경류정(題慶流亭)'[11] 시판이 걸려 있다. 이러한 경류정은 공들인 공포와 상부가구 등이

10) 경사스러움이 먼 자손 대에 까지 흘러 미친다는 뜻임.

11) 경류정 주인에게 이곳이 문중의 구심점이므로 종가의 발전에 힘써주길 당부하며 경류정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음.

어우러진 기품이 이 집에서 최상위의 공간임을 느끼게 한다.

< 사당 >

○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인데, 측면 간살을 정면보다 넓게 잡았다. 정면의 어칸과 좌·우 협칸에는 각각 두 짝과 외짝 굽널정자살 문을 달고, 양측면은 붙박이 교살 창을 설치하였다. 내부는 통간에 마루바닥을 깔고 서쪽으로부터 불천위·고조고비·증조고비·조고비·고비의 5위를 모셨다.

○ 장대석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정면만 소로 수장하고 나머지는 장혀 수장한 민도리형식이다. 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는 익·행공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종보 상부에는 화반과 파련을 혼용한 듯한 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정면은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로 구성한 박공지붕으로 양측에 풍판을 설치했다.

○ 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넓은 어칸에는 두 짝 중턱 대문을, 양측 협칸에는 한 짝 중턱 대문을 달았다. 막돌 초석 위에 방주를 세우고 3량 가로 가구한 민도리형식 박공지붕 집이다.

○ 사당과 삼문의 현재 모습은 주택보다 늦은 시기의 양식으로 보이나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 행랑채, 방앗간채 >

○ 행랑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좌로부터 온돌방·부엌·온돌방·고방·곳간·고방을 두었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장혀 수장 민도리집이다. 가구는 3량 가로 대량 위에 동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고, 홑처마 박공지붕을 얹었다.

○ 방앗간채는 정면 3.5칸, 측면 1칸의 초가다. 맨 좌측칸에 디딜방아가 있고 그 우측 2칸은 욕실과 문간이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상부를 가구하고 이엉을 이었다.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몸채를 18세기 이전, 별당을 16세기 중반에 건립한 집으로 ⅰ)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른 엄격한 내외 공간의 배치 및 평면 형식과 사당의 독립적 영역 구성, 별당·뚝향나무·행랑채를 담장과 대문간 없이 배치한 특별한 구성, ⅱ)비교적 이른 시기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편청식 안대청의 드문 모습, ⅲ)18세기 이전에 주로 나타난 흘림기단과 서산각 지붕, 17세기 이후부터 돌출한 사랑공간 지붕의 높은 시인성, ⅳ)17세기 사대부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읽게 하는 사랑과 별당 공간의 높은 품격과 주거 민속 등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 이러한 주촌종택은 18세기 전후의 사대부 주거건축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주거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安東 眞城李氏 周村宗宅)

4. **주촌 입향과 종택 건립**

1) **주촌 입향과 종가 사람들**

○ 진성이씨(眞城李氏)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은 대체로 1400년대초로 보인다. 진성이씨는 처음 터를 잡은 곳은 현재 청송군 진보면 지역이다. 시조 이석(李碩)은 진보현리(眞寶縣吏)였으나, 고려 출렬왕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의 장남 이자수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여 안사공신(安社功臣에 책록되고 송안군(松安君)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시조 이석 윗대 조상은 대대로 진보지역의 향리직을 지냈고, 이석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게 된다. 그 뒤 후손들은 이석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진성(眞成)으로 하였는데, 진보(眞寶)라고도 한다.

○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岐谷,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서 마리촌(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으로 이주하였다. 그 때가 1383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가 만년(晩年)에 이 주촌에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한다. 진성이씨가 주촌에 실질적인 정착 시기는 자수의 맏아들 운후(云候)와 손자 정(禎)을 거치면서 인 것으로 보인다. 주촌의 행정명은 주하리(周下里)이고 과거 이노촌(二老村)이라고 와룡면지(1933년)에 적고 있다. “부정공의 자 정(禎)이 선산부사로 이곳에 귀노하였으면, 영춘이씨(永春李氏) 이유선(李惟善) 또한 선산부사로 복거(卜居)하였으므로 두 노인 한 마을에서 함께 노후를 보낸 것에 연유하여 이노촌”이라 하였다. 영가지(永嘉誌, 1602)에도 이운후가 정착하여 이정회(李庭會, 1512-1612)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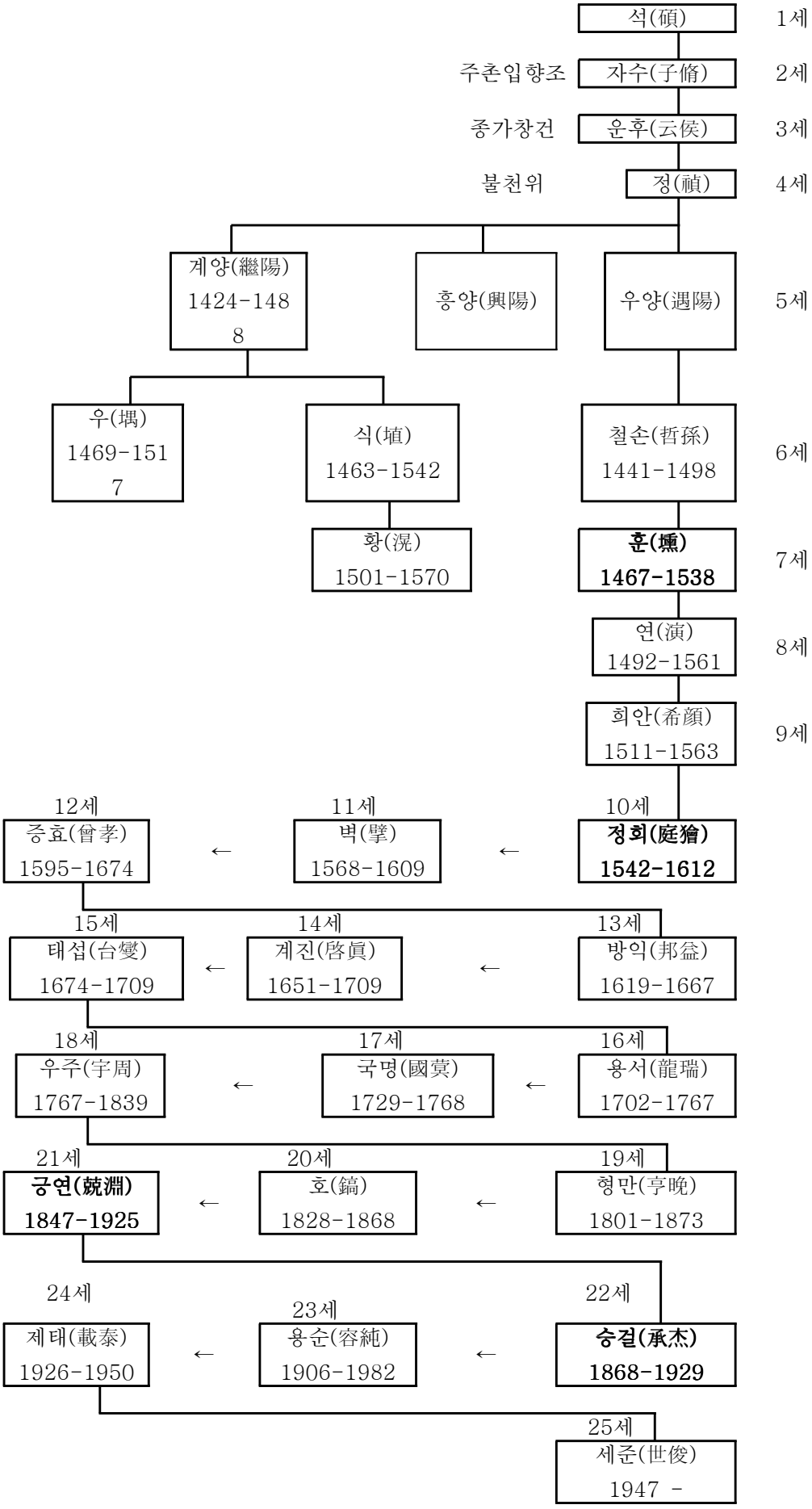
○ 4세 이정은 1431년(세종 13) 평안도 영변 판관으로 재직시 오랑캐의 침범을 막기 위해 오랑캐의 침공을 막기 위해 영변진(寧邊鎭) 설치와 양산성 증축을 관리·감독하여 완성하였다. 최윤덕을 도와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공를 세워 원종훈(原從勳) 2등에 책록되었다. 영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산 향나무를 가지고 와 본가에 심은 것이 지금 종택 앞에 있는 천년기념물 제314호 뚝향나무다.

○ 이정은 계유정난(癸酉靖亂)에 가담하여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원정공신(3등)이 되었고, 중앙의 관료로 입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가문의 격이 올라가고, 전답, 노비 등이 급증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그는 우양(遇陽), 흥양(興陽), 계양(繼陽) 3남을 두는데, 3남 계양(繼陽, 1424-1488))의 손자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다. 장남 우양은 자식에 재산을 상속한 금급문기(衿給文記)에는 자식 남매에게 정해진 몫의 노비 16구를 상속하고 종토(宗土)를 유지하기 위해 후손들로 하여금 지표로 삼게 하였다.

○ 10세 이정회(李庭獪, 1512-1612)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퇴계의 문인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횡성현감으로 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면서 아우 정백(庭栢)을 안동으로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1589년 선조가 명나라 태보실록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자로 잘 못 기재된 것을 고치도록 사신을 보내게 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못하던 것을 배삼익(裵三益)과 함께 간 이정회 등이 왕실의 계통을 바로 잡는데 공을 세워 광국원종공신9光國原從功臣)에 책록 된다

○ 그는 가문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로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 계중완의(契中完議), 남매화회문기(男妹和會文記) 등을 남겼고, 그가 적은 송간일기(松澗日記)는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일기는 1517년(선조 10)에서 1612년(광해군 4)까지 기록으로 모두 4권을 남겼다. 이는 임란 전후의 생활사 및 영남사림파의 형성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21세 이긍연(李兢淵, 1847-1925)은 을미의병에 참여한 공로로 2002년 독립유공지로 선정되고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10월 11일까지 의병활동기간에 적은 을미의병일기가 발견되어 그의 안동 의병활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석(碩) 1세
주촌입향조 자수(子脩) 2세
종가창건 운후(云侯) 3세
불천위 정(禎) 4세
계양(繼陽) 1424-1488
흥양(興陽)
우양(遇陽) 5세
우(堣) 1469-1517
식(埴) 1463-1542
철손(哲孫) 1441-1498 6세
황(滉) 1501-1570
훈(壎) 1467-1538 7세
연(演) 1492-1561 8세
희안(希顔) 1511-1563 9세
12세 증효(曾孝) 1595-1674
11세 벽(擘) 1568-1609
10세 정희(庭獪) 1542-1612
15세 태섭(台燮) 1674-1709
14세 계진(啓眞) 1651-1709
13세 방익(邦益) 1619-1667
18세 우주(宇周) 1767-1839
17세 국명(國蓂) 1729-1768
16세 용서(龍瑞) 1702-1767
21세 긍연(兢淵) 1847-1925
20세 호(鎬) 1828-1868
19세 형만(亨晩) 1801-1873
24세 제태(載泰) 1926-1950
23세 용순(容純) 1906-1982
22세 승걸(承杰) 1868-1929
25세 세준(世俊) 1947 -

5. 종택의 건립

○ 진성이씨 종택은 안동시 와룡면 주하1리 633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주하리 종택은 이운후(李云侯)가 정통년간(正統年間, 1436-1449)에 처음 건립하였다고 집안에서 16세기부터 작성한 봉선록(奉先錄)에 기록하고 있다.

○ 7세 훈(壎,1467-1538)이 현재 자리인 서쪽 백호좌로 이건하였으나 사당은 이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과거에 뜻이 있어 초시에 합격하였지만 등과하지 못하였고, 만년에 산업에 힘써서 재산이 매우 풍부하게 되었다고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에 기록하고 있다. 그는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종가를 대대적으로 이건 · 중수하여 50칸을 건립하게 된다. 10세 정회(庭獪, 1512-1612) 때 사당을 정침 서편 백호위에 이축하였다. 임빈왜란으로 일부 소실되고 12세 증효(曾孝, 1595-1674)가 1630년 다시 원래 터를 잡은 곳으로 이건하였다.

○ 1929년 다시 한번 크게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擇日記)"가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1929년 중수할 때 가옥해체를 비롯하여 상량에 대한 전체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일정도 당시 종손 승걸(承杰, 1869-1929)과 부인 그의 아들, 자부, 손자 2명 등 모든 가족들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참조하여 잡았다. 중수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1월 11일 시작하여 4월 20일에 마치는 일정이고, 다른 하나는 7월 9일에 시작하여 8월 2일에 마치는 일정이다. 또, 같은 일정 중에서도 가옥해체나 상량 중 중요한 역사(役事)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있었다. 가옥중수을 할 때도 집안의 사정이나 기상여건 등 여러 사정을 미리 대비하여 꼼꼼히 준비한 것을 일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6. 관습의 전승과 민속자료

1) 혼례

○ 진성이씨 종가가 주촌에 터 잡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력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중요 성씨로는 의성김씨. 풍산유씨, 봉화금씨, 풍산김씨, 영덕의 영해 신씨, 무안박씨 등의 집안이다. 종가에 남아 있는 혼인 관련 문서를 보면 연길단자, 혼수함, 혼서지, 족두리, 댕기, 혼례홀기, 신행택일기, 혼수물목 등이 전하고 있다.

○ 연길단자涓吉單子)는 1910년 이긍연(李兢淵, 1847-1925)의 둘째 아들 병걸(秉杰)이 의성김씨와 혼인 때 신부집에서 보낸 것이다. 이 단자(單子)에는 혼인날짜가 9월 8일로 되어 있다. 혼서지는 1672년 이계진(李啓眞, 1651-1709)이 영해 신씨와 혼인할 때 것이 대표적이다. 이 문서는 조부인 이증효(李曾孝, 1595-1674)의 이름으로 보냈다. 이는 당시 혼인과 관련한 문서에는 부모가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는 종손이 보내는 관습을 엿 볼 수 있는 문서이다. 신행택일기는 1948년 작성된 것으로 신부는 1948년 2월 8일 오후 1시-3시에 시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다. 혼수물목은 이용순(李容純,1906-1982)의 처 의성김씨가 시집올 때 물목으로 알져 있다 이 물목에는 저고리 · 치마감 · 적삼 · 바지감 등 옷감이 대부분이었고, 비녀와 반지 등의 장신구, 장롱 등 무려 160가지 품목이 적혀 있어 집안의 혼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 과거 신행은 혼인 후 해를 넘겨 하는 '해묵이'가 많았지만, 근대로 오면서 그 시기가 짧아졌다. 현 종손 이세준(李世俊, 1947 -)의 어머니 풍산김씨는 3개월만에 신행을 하였지만 해를 넘겨서 왔다. 종손의 부인 무안박씨는 1973년 음력 10월 20일 혼ㄹ례를 치르고 26일만에 신행하였다고 한다.

2) 상장례

○ 상장례에 관한 자료는 안장택일기(安葬擇日記), 만장(輓章), 복차(服次), 종복(宗服), 제문(祭文), 1986년 지낸 길사(吉祀)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 안장택일기는 1875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 해 7월 이긍연(李兢淵, 1847-1925)의 처 유씨가 사망했을 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장례의 절차는 망자의 생년, 가족들의 생년을 참고하여 길일 택하였다. 안장택일기를 보면 7월 5일 사망한 부인의 안장일이 9월 9일 빈소를 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13일 안장하는데 하관은 사시(巳時, 9시-11시)이다.

○ 복차(服次)는 상복 입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다. 가례에는 상복을 입는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두었는데, 진성이씨 종가 남아 있는 복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세 이호(李鎬, 1828-1868)의 계비 풍산유씨 장례 때 기록(1905년)을 보면 아들과 며느리 3멈 조카손자손녀 1년, 시집간 질녀와 질부, 손부는 9개월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친정에서는 조카, 종제, 종손자가 각 9개월, 5개월, 3개월을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 종손이 사망하면 8촌이 넘는 종중원들도 3개월에 걸쳐 상복을 입은 기록인 종복(宗服)이 남아 있다.

○ 장례를 치르고 나면 소상과 대상을 치렀는데, 이 때 친인척이나 망자(亡者)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제문(祭文)을 올리기도 한다. 제문을 통하여 한말 의병운동가로 활동한 이긍연(李兢淵, 1847-1925)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날짜 등을 보면, 1925년 7월 16일 사망, 1925년 9월 17일 장례, 1926년 7월 16일 소상, 1927년 7월 16일 대상을 치렀다.

○ 대상을 지나면 탈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사당이 있으면 조상을 사당으로 모셔야 하고 종손이 바뀌기 때문에 윗대 조상의 신주를 묻는 행사가 있다. 신주를 묻는 것은 체천이고, 이 과정의 의식을 길사(吉祀)라고 한다. 진성이씨 종가에서는 현 종손의 조부인 이용순(李容純, 1906-1982)이 1982년 사망하고, 1984년 조모 의성김씨가 사망하여 1986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손의 지위를 이어받고 사당의 신주를 체천하는 길사를 지낸바 있다. 집안에서는 19세기 후반 이긍연이 작성한 길사의 진설도가 있다.

3) 제례

○ 진성이씨 종택에서는 현재 차례, 기제사, 묘사와 세조 때 좌익원정공신인 3세 이정(李禎)의 불천위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 종택에는 정침의 서편에 사당이 있다. 가례의 규정에 따르면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있어야 하나, 이집은 주산의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지세의 편의상 서쪽에 지었다. 현재의 사당은 퇴계 방계손인 이황의 자문을 받아 1560년경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황은

사당을 짓는데 목면 1필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당 내부에는 불천위 1분을 포함하여 다섯분이 모셔져 있다. 서쪽으로부터 불천위인 이정의 내외분,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종손의 부의 순서로 모셔져 있다. 이정의 불천위는 1565년 족회(族會)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 기제사는 대청에서 모시는데, 사당에서 신주를 출주하여 제상에 모시고 제사를 오리고, 차례에는 사당에서 지낸다. 묘사는 전체적으로 주촌 문중에서 관장한다. 주촌 문중은 시조 소(所)를 포함해서 11개 재사 및 작산정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가옥 및 위토대지, 전, 답, 임야)는 주촌문중 대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11개 재사 및 작산장사의 유사의 단자가 접수되면 이정의 불천위 때 3파 제관들이 공론하여 천거 한다. 작산정사 분향유사 및 주촌문중 별유사, 불천위 유사도 등도 임기가 끝나면 역시 불천위 때 후임유사를 임명한다.

○ 시조 석(碩)과 2세 송안군 자수(子脩, 주촌입향조)의 묘제 및 향사의 초헌관은 도유사이고, 3세 부정공 운후(云侯) 묘제부터는 주촌 종손이 초헌관이 된다. 현재 주촌 종손이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묘지 위수는 총 55기 중 재사에서 수호하는 22기를 제외 하면 33기이다.

○ 종택에서 소장하는 제사 관련문서 봉선록奉先錄)이 있고, 19세기 이긍연이 작성한 제사 기록이 있다. 봉선록은 16세기부터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 방법과 절차시기 등 적어 놓은 책으로 모두 4책으로 성책(成冊)되어 있다. 이긍연이 작성한 제사 기록은 축문양식, 제사홀기와 이긍연이 행한 길제(吉祭)의 진설도가 있다.

4) 고문서와 생활용품

○ 진성이씨 종택의 고문서 및 전적 2,913점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는 1430년대부터 1970년까지 자료로서 조선전기부터 근현대까걸쳐 생활활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 주요전적으로 1577년부터 1612년까지 적은 이정회(李庭獪, 1542-1612)의 송간일기(松澗日記), 진성이씨족보(眞城李氏族譜, 초간본),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 좌익원정공신녹권(좌익원정공신녹권), 봉선록(봉선록), 경내외관안(경내외관안) 등이 있다.

○ 주요고문서로 15, 16세기의 문서들 많이 보관되어 있다. 고신류(告身類)는 1434년 이정고신(李禎告身, 세종 16)이 가장 빠르고, 1528년 안동부북주촌 호적단엽(안동부북주촌 호적단엽), 16세기 가정연간(가정연간)의 토지매매명문(토지매매명문), 1597년 군대편제관계자료인 오사합위일영지도(오사합위일영지도), 퇴계 이황간찰(퇴계 이황간찰) 등이 있다.

○ 성책고문서류는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가 대부분으로 당시 문중의 사회ㆍ경제ㆍ생활사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기타 고문서류가 2000여점이 있다. 의식주 생활용품으로는 관모, 혼수함, 족두리, 다리미, 백자사발과 병. 사루, 유기, 소반, 채독, 술통, 연적과 벼루, 표주 등이 전한다.

7. 조사자 의견

○ 진성이씨가 안동에 정착한 것은 시조의 장남인 자수가 기곡(岐谷,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서 1383년경 마리촌(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으로 이주하면서라고 한다. 그가 만년(晩年)에 현재 종가가 있는 주촌에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하며, 실질적인 정착시기는 자수의 맏아들 운후(云候)와 손자 정(禎)을 거치면서 인 것으로 보인다.

○ 16세기부터 작성한 봉선록(奉先錄)에 종택은 이운후(李云侯)가 정통년간(正統年間, 1436-1449)에 처음 건립하였다고 한다,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에는 7세 훈(壎,1467-1538)이 종가를 대대적으로 이건ㆍ중수하여 50칸을 건립하였고, 10세 정회(庭獪, 1512-1612) 때 사당을 정침 서편 백호위에 이축하였다. 임빈왜란으로 일부 소실되고 12세 증효(曾孝, 1595-1674)가 1630년 다시 원래 터를 잡은 곳으로 이건하였다. 집안에서에 기록하고 있다. 1929년 다시 한번 크게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擇日記)"가 전하고 있다.

○ 진성이씨가 안동에 정착하여 조선시기에 성리학의 거유 퇴계 이황을 배출하여 영남학파 성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 족적을 이 집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집안 전승하는 문서와 의례들을 통하여서도 한 집안의 생활사나 향촌사회의 생활문화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진성이씨 주촌 종택의 실질적으로 진성이씨의 대종가이다. 특히,종택의 건립과 관련한 문서들이 있어 종택 건립과 관련 여러 저보를 얻을 수 있다. 봉선록(奉先錄)과 "진성이씨세전유록(眞城李씨世傳遺錄)" 등에서 확인허 ㅏㄹ 수있다. 특히, 1929년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 중수과정을 기록한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擇日記)"가 전한다. 이 일기에 상량에 대한 전체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정도 모든 가족들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참조하여 잡았다. 중수일정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같은 일정 중에서도 가옥해체나 상량 증 중요한 역사(役事)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가옥의 짓고 중수하는지를 알 있고, 집을 건립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한다. 종택 앞에는 4세 이정은 1431년 영변 판관을 지냈고, 이때 영변에서 가지고 와 심었다는 뚝향나무가 천년기념물 31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종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2. 혼례. 상례, 제례문화를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전승되고 있다. 진성이씨 종가가 주촌에 터 잡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력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중요 성씨로는 의성김씨. 풍산유씨, 봉화금씨, 풍산김씨, 영덕의 영해 신씨, 무안박씨 등의 집안이다. 종가에 남아 있는 혼인 관련 문서를 보면 연길단자, 혼수함, 혼서지, 족두리, 댕기, 혼례홀기, 신행택일기, 혼수물목 등을 통하여 집안의 혼례문화를 볼 수 있다. 상장례에 관한 자료는 안장택일기(安葬擇日記), 만장(輓章), 복차(服次), 종복(宗服), 제문(祭文), 1986년 지낸 길사(吉祀)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다. 이런 자료들은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 그 절차를 잘 지킨 하나의 증거들이다. 현재 제례는 차례, 기제사, 묘사와 세조 때 좌익원정공신인 3세 이정(李禎)의 불천위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이

종가에서는 제사와 관련 기록들을 꼼곰히 기록 자료들이 전한다. 봉선록奉先錄)은 봉선록은 16세기부터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그 방법과 절차시기 등 적어 놓은 책으로 모두 4책으로 성책(成冊)되어 있다. 19세기 이긍연이 작성한 제사 기록은 축문양식, 제사홀기와 이긍연이 행한 길제(吉祭)의 진설도가 있다.

3. 고문서 및 전적 2,913점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이 종택의 고문서는 1430년대부터 1970년까지 자료로서 조선전기부터 근·현대까지 생활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정회(庭獪, 1542-1612)의 송간일기는 1577년에서 1612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거의 매일 작성하였다. 이 일기는 당시 집안 일상생활사와 당시 의 날씨, 지역사회의 일상사까지 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다. 이외에 2세 송안군 이지수가 썼다는 관모(고려말 관모 추정)을 비롯하여 많은 의식주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진성이씨 주촌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安東 眞城李氏 周村宗宅)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

4. **창건과 변천**
   ○ 안동 진성이씨의 종택인 주촌종택(周村宗宅)은 퇴계 이황선생 등 명현을 배출한 가문으로 이황선생의 큰집이기도 하다. 현재 종택이 위치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는 과거부터 '주촌(周村)' 또는 '두루마을'로 불려왔다. 현재 종택 일곽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주촌종택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중의 내력 관련 기록들이 수록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진성이씨세전유록(眞成李氏世傳遺錄)」,「봉선록(奉先錄)」등을 참고로 하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종택은 진성이씨 주촌파(周村派) 3세인 이운후(李云候)가 '주촌'으로 이거(移居)하면서 창건(創建)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그림1-좌 참조) 7세인 이훈(李壎, 1467~1538)때에 이르러 종가(宗家) 50여 칸을 건립(그림1-우 참조)하는 등 대대적인 중수(重修)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조선중기 이전에 초창(初創)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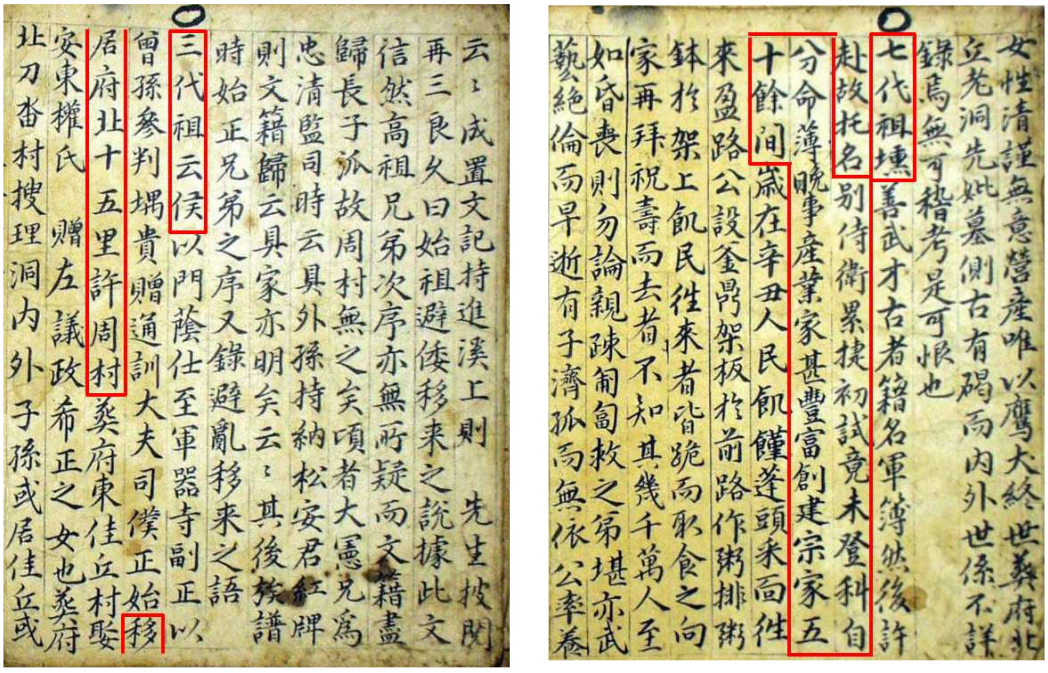

云云成置文記持進溪上則 先生披閱
再三良久曰始祖避倭移來之說據此文
信然高祖兄弟次序亦無所疑而文籍盡
歸長子派故周村無之矣頃者大憲兄爲
忠淸監司時云具外孫持納松安君紅牌
則文籍歸云具家亦明矣云云其後族譜
時始正兄弟之序又錄避亂移來之語
○三代祖云侯以門蔭仕至軍器寺副正以
曾孫參判堈貴贈通訓大夫司僕正始移
居府北十五里許周村奚府東佳丘村娶
安東權氏 贈左議政希正之女也奚府
北刀沓村搜理洞內外子孫或居佳丘或
女性淸謹無意營產唯以鷹犬終世奚府北
丘老洞先妣墓側古有碣而內外世系不詳
錄焉無可稽考是可恨也
○七代祖壎善武才古者籍名軍簿然後許
赴故托名別侍衛累捷初試竟未登科自
分命薄曉事產業家甚豐富創建宗家五
十餘間歲在辛丑人民飢饉逢頭來面往
來盈路公設釜鬲架板於前路作粥排粥
鉢於架上飢民往來者皆跪而取食之向
家再拜祝壽而去者不知其幾千萬人至
如昏喪則勿論親疎匍匐救之第堪亦武
藝絕倫而早逝有子濟孤而無依公率養

그림1 진성이씨세전유록(眞成李氏世傳遺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또한, 주촌종택의 별당인 경류정(慶流亭)은 이황이 당호(堂號)를 지은 것으로 8세 이연(李演, 1492~1561)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나 이 역시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퇴계 이황선생이 지은 경류정 시판인 '제경류정(題慶流亭)'에 '嘉靖丙辰 中秋前大司成滉奉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556년쯤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종택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문중 내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인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宅日記)'를 볼 수 있는데(그림2참조), 일기의 내용에는 종택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가옥의 해체, 터파기, 정초, 입주, 개와 및 상량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정별로 일정 등을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의 '중수공사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촌종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택은 1987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채(안채, 사랑채)와 별당인 경류장을 비롯하여 사당, 행랑채, 방앗간채, 담장 등 일곽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어 왔고 종택 우측 경사지 위로는 정면2칸×측면1칸 규모의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어 보이지만 현 종손이 거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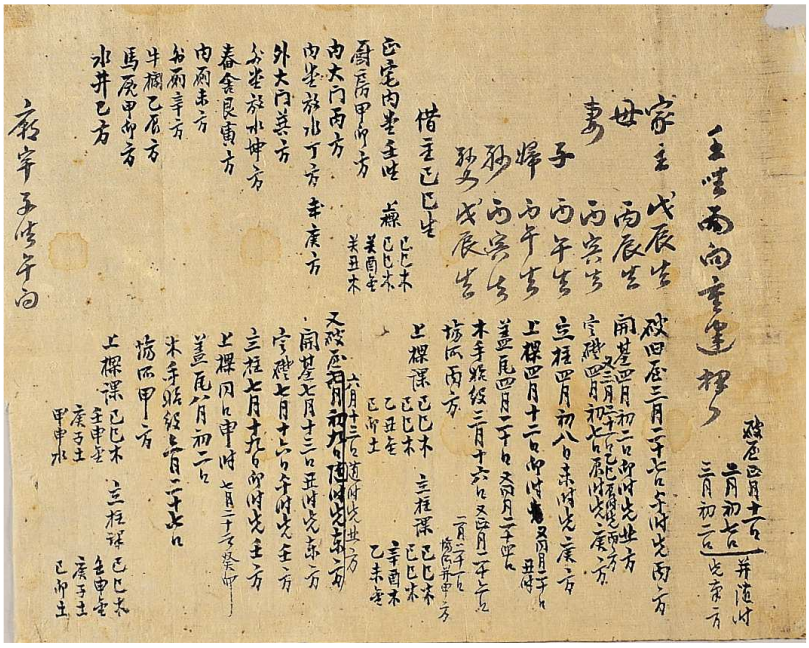


그림 2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宅日記)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 건축구조 및 양식

○ 조선시대 양반주택 내에는 성리학적 규범들이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의 구분은 유교적 종법 질서체계를 구현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내·외 구분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외담, 내외문의 설치를 통한 시각적인 차단에서부터 안채와 사랑채 공간을 분리하는 가옥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지역적인 특징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배치방법을 보이나 주촌종택이 위치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는 통상 안채(또는 안마당)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는 'ㅁ'자형의 배치형식

을 취한다. 또한, 이들 지역 내에서도 ‘ㅁ’자형 배치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완연한 ‘ㅁ’자형, 건물 사이가 떠 틔어있는 ‘ㅁ’자형 등과 같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주촌종택은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ㅁ자형의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다. 즉, 안채 마당(중정)을 중심으로 안채와 좌·우익랑이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전면에 ‘ㅡ’자형으로 연결된 사랑채와 중문채가 연이어 전체적으로 완연한 ‘ㅁ’자를 이루고 있다. 중정으로 구성된 안채 마당은 동·서측 익랑과 남측 중문채에 설치된 통래칸 등을 통해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중문채에 설치된 통래칸이 안채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나 안채 마당을 사랑 마당보다 높게 축조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서 내·외를 구분하고 있다. ‘ㅁ’자형으로 구성된 소위, 본채의 서쪽편으로는 주촌종택의 별당건축인 경류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으로는 행랑채, 뒤편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 안채는 정면5칸×측면2칸의 5량 집으로 대청, 안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방 전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통상 안채에 대청이 설치될 경우 가운데 칸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주촌종택의 경우에는 안방을 중심으로 대청이 서측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붕가구는 5량 구조로 대청 상부에 설치된 대들보는 통보가 사용되었으며, 안방 상부에는 대들보와 전면 퇴칸의 툇보가 맞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좌·우익랑은 모두 정면3칸×측면1칸의 3량 집으로 안채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게 놓여 있으며 좌익랑은 상방, 부엌, 고방으로 우익랑은 통래칸, 고방, 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랑은 안채에 연결된 일종의 부속공간으로 과거 좌익랑 부엌 상부에는 상방으로 통하는 다락을 설치하여 음식물과 생활도구, 목화솜 등을 저장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우익랑 역시 한때 중방 상부를 다락으로 이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고방(마루)에 옹기단지를 두어 저장공간으로 하고 있다.

○ 중문을 중심으로 중문채는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내루(內樓)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랑채는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즉, 안채를 정면으로 좌측편에 사랑채를 두고 우측으로 중문채를 연결하여 중문간을 통해 안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렇듯 ‘ㅁ’자형 주택의 경우 사랑채의 위치, 중문채와의 연결방법, 안채로의 진입방법 등에 따라 ‘ㅁ’자를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주촌종택 역시 그 중 하나의 정형화된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다.

○ 사랑채는 정면4칸×측면2칸의 5량 집으로 측면의 경우 어칸 전·후면에 각각 반칸 규모의 퇴칸이 달려 있는 전·후 퇴칸형이다. 정면 4칸은 1칸의 못방과 사랑마루, 2칸의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붕의 형태나 전면 누마루의 구조 등으로 보아 2칸의 사랑방 중 우측 1칸은 본래 사랑채가 아닌 중문채 공간으로 이를 사랑채에 덧붙여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지붕가구는 5량 구조로 중앙 1칸의 대들보와 전·후퇴칸의 툇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 누마루 상층 전면에는 원기둥이 사용되었으나 하층에는 육각기둥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 하고 있다.

○ 중문채는 대문간과 마구간, 고방, 못방, 중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못방이 누

에 철에 '잠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과거 주촌종택 내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촌종택의 별당(別堂)인 경류정은 안동 진성이씨 문중의 회합 장소이다. 정면3칸×측면2칸의 규모로 종택의 사랑채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은 좌측 4칸의 마루방과 우측 2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의 경류정은 종택 밖에 있었으나 8세 이연(李演, 1492~1561)이 오늘날의 위치로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붕가구는 5량 구조로 대들보는 전·후 칸을 가로질러 전·후면 외진 평주 상부에 결구되어 있으며 대들보 위에 첨차를 놓아 상부의 장여와 중도리를 받고 종보 상부에는 파련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양 퇴칸에는 충량을 설치하여 외기를 받치고 있는데 충량 부재는 대들보와 측면 평주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적인 곡선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어 경류정의 구조미를 한층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정면 어칸 상부와 퇴칸 종보 위에는 각각 퇴계 이황의 '경류정' 현판과 '제경류정' 시판이 걸려 있다.

○ 사당은 정면3칸×측면1칸의 규모로 안채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측 벽면에 감실장을 설치하여 진성이씨 주촌파 4세 '이정'의 불천위를 포함하여 모두 5위를 봉안하고 있다. 사당 정면에 설치된 쌍여닫이 만살청판문, 외여닫이 만살청판문에서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주촌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6. 지정가치

○ 안동 진성이씨 주촌종택은 본채와 별당 모두 오랜 세월동안 대대적인 중수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여 지나, 초창 연대가 조선중기 이전 즉, 임진왜란 이전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 문중 내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인 '가옥중수택일기(家屋重修宅日記)' 가 주촌종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촌종택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ㅁ자형의 구성방식을 보이나 ㅁ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 경류정은 주촌종택의 별당건축으로 건립연대가 조선중기 이전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며 또한 가구구조나 부재의 치목 수법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주촌종택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창건연대, 평면 및 가구구성, 부재 치목기법, 보존상태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보수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안채 기단 시멘트몰탈 마감 등)에 대해서는 원형으로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번호 민속 2017-03-02

2.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빈동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제2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17.4.11.) 검토 후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로 지정예고('17.4.27.~5.27.)하였고,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봉화 빈동재사(奉化 賓洞齋舍)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3

○ 소유자 : ○○○

○ 수량 : 일곽(건물 1동, 토지 565㎡<1필지>)

- 건축물 지정 : 1동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봉화 빈동재사	본채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118.75㎡	○○○
계				118.75㎡	

- 토지 지정 면적 : 565.00㎡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2	대	565.00	565.00	○○○
계			565.00	565.00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빈동재사는 1753년에 중건한 선성 김씨 (宣城 金氏) 김담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ㅇ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口자형 중에서 측면에 누를 둔 재사로 입지 조건, 배치와 평면 구성의 지역적 특징과 함께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다. 구조 양식적으로는 중건한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단, 창호, 지붕 형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코쿨·흙등잔대 등은 희소가치가 큰 실례로 재사건축의 양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ㅇ 이러한 가치로 보아 빈동재사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빈동재사 건물은 18세기 재사 건물로서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콧굴 등 경북북부지역의 특성이 남고 있어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고, 18세기 조상을 숭배하는 방식과 제례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계승하려는 문중의지가 상당히 강하여 문중차원에서 전승할 수 있는 장치로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宣城金氏三所運營委員會)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ㅇ 빈동재사는 재사가 갖는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 학술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는 봉화 빈동재사는 선성(예안)김씨 7대손인 김담(金淡, 1416~1464)의 재사로 초창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중건빈동재사기(重建賓洞齋舍記)」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의 기록에 의하면 1753년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에 당초 규모보다 확대하여 중건(重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기록들이 빈동재사의 중건 내력을 비교

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존하는 건물의 건축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ㅇ 건축의 구성방식에 있어 몸채와 부속채가 완연한 ㅁ자의 형태를 이루고 또한, 경북 북부지방의 재사건축에서 일종의 토착성으로 볼 수 있는 누각(樓閣)과 몸채에서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이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 우측에 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등은 다른 지역의 재사건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ㅇ 지붕가구에서 사용한 곡재(曲材)을 비롯하여 영쌍창(靈雙窓), 우리판문 등 구조상 특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영쌍창의 설주 모습과 형태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빈동재사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ㅇ 이러한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비록, 서원이 훼철되었지만 재실인 빈동재사와 함께 묘소, 신도비, 문중 위토 등 일련의 요소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보수과정에서 변형된 부분(기단 시멘트몰탈 마감 등)과 상당기간 재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당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으로의 회복과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봉화군 의견)

- ㅇ 봉화 빈동재사는 선성(예안)김씨 7대손 김담(金淡, 1416~1464) 선생의 재사로 1753년에 같은 자리에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창건하였음을 「중건빈동재사기 (重建賓洞齋舍記)」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의 기록으로 알 수 있어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다.
- ㅇ 김담은 왕명으로 이순지(李純之)와 함께 조선을 기준으로 한 최초 역법(曆法)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을 저술하였으며 당대에 뛰어난 천문학자로서 세종대의 천문·역법사업에 크게 기여한 저서는 역사적·인문학적 가치가 높다.
- ㅇ 빈동재사는 ㅁ자형을 이루고 있는 평면형식에서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건물은 중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주거에서와 같이 방 사이에 마루가 있는 평면구성은 다른 특수형 재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구성으로 빈동재사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실건축에서 남아있는 유래가 드문 코쿨과 토조등잔대의 실물을 갖추고 있어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 ㅇ 이처럼 봉화 빈동재사는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재사 건축물로서의 입지가 확고하며 그 가치 또한 대대로 전승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바. 검토의견

○ 지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는 상황으로서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가결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안동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빈동재사**(奉化 賓洞齋舍)

4.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

○ 봉화 빈동재사[12]는 문단리에서 5km 정도 떨어진 북서쪽 계곡 깊은 곳의 야산 자락 끝 완경사지에 배산하여 자리 잡고 있다. 전방의 열려진 곳으로는 굽이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고 좌우로는 낮은 산이 둘러져있다. 이런 형국을 장풍(藏風)에 치중한 산대국(山大局)이라고 하며, 만월대(滿月臺)를 중심으로 한 개성일원(開城一圓)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한다.

○ 뒷산 동편 위에는 김담(金淡, 1416~1464)[13]과 정부인 감천문씨(甘泉文氏) 묘가 100m여 떨어져 있고, 전방 서남쪽 아래에는 1635년에 세운 신도비가 비각 안에 있다.

○ 한편 문단리 마을에는 1618년에 문계서당(文溪書堂)이 건립하면서 김담의 제사를 지낼 사당을 세웠는데, 1712년에 단계서원(丹溪書院)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영조 원년(1725)에 훼철 명을 받고 상소를 올리는 등으로 면하였으나, 고종 8년(1871)에 결국 훼철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이 재사가 속한 경북북부지역은 입지적으로 볼 때 묘가 있는 산중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기타 지역에서 대체로 마을 내 또는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과 다른 점이다. 빈동재사는 묘제의 제례의식 순서에 따라 갖추어지는 신도비·재사·묘 중의 하나로 이 지역 조상숭배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5. **연혁 유래 및 특징**

○ 선성 김씨(宣城 金氏) 김담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이 재사 이전에 건립연대를 알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재사가 있었는데, 퇴락하여 종친인 행추(行秋, 1679~1758)가 1751년에 다시 지을 뜻을 세우고 1753년에 완공하였음을 기록[14]을 통해서

---

12)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1991년 지정)

13) 본관은 선성[宣城, 예안(禮安)]이고 자는 거원(거원), 호는 무송헌(무송헌)이며, 세종, 세조 양대에 활약한 문절공(문절공)으로 20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종사랑집현전정자경연사경(從仕郎集賢殿正字經筵司經)에 제수되었음.

14) 김담 8세손 이만(이만, 1683~1758)이 1754년에 작성한 「중건빈동재사기」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

알 수 있다. 현재 건물은 1993년, 1996년, 2006년에 수리가 이루어져 보존과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 산자락의 전저후고 대지 지형에 따라 전면에 석축을 쌓고 口자형 재사를 외곽 담장 없이 남향으로 앉혔다. 전면에 주출입구를 두고 우측면에 부엌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다.

○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완전口자형 집이다. 중정 북편 맨 위쪽은 좌로부터 상실(上室, 유사방)[15]·마루·차실(次室, 웃방)[16]·부엌이 놓여 있다. 상실 앞으로는 4칸통 누(강당)가 전면까지 뻗어 좌익사를 이루고 있다. 부엌 앞으로 이어진 우익사는 통래간·차실(전사청)[17]·부엌(광)·차실(아랫방)[18]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 정면 좌·우익사 사이 3칸은 왼쪽부터 대문·마구간·부엌이다. 우익사 실 위로는 3칸통 다락을, 상실 위에는 2칸통 더그매를, 마구간 상부에 유상고를 두었다. 큰 수장 공간을 설치한 것은 위토의 농산물, 제기와 참제인 식기, 재실관련 서적류를 보관하기 위해서다.

○ 한편 유사방과 부엌 사이의 벽 구석에 코쿨이 있으며, 전사청 방에도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코쿨은 등잔불 대용으로 난방 기능도 함께 한다. 그리고 유사방 부엌의 부뚜막과 아랫방과 전사청 사이의 부엌의 벽 구석에는 흙을 내어 쌓아 등잔대를 만들어 놓았다. 두 시설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는 귀한 실제 모습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 口자형 재사에서의 누는 헌관과 참제인이 모여 문중회의와 음복을 하고 망제와 경관 감상을 위하여 묘 방향의 정면 또는 측면에 배치한다. 이와 달리 빈동재사는 누가 묘의 위치와 반대 방향인 좌측면에 놓여있다. 이는 묘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묘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큰 비가 올 경우는 기다렸다가 그치면 묘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빈동재사는 '측루형'으로 분류되는데, 봉화 무진장재(無盡藏齋)·봉화 백암재사(栢巖齋舍)·안동 남흥재사(南興齋舍)·안동 고성이씨재사(固城李氏齋舍)[19] 등과 유사하다. 口자형 재사는 안동문화권[20]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누를 갖춘 재사는 안동(9개소), 봉화(8개소), 영덕(3개소), 예천(2개소)[21], 영주(2개소), 청송(1개소) 순으로 나타난다. 재사에 누가 처음 세워진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17세기 후반

---

15) 종손과 헌관이 머무는 곳

16) 문중의 연로한 참제인이 이용하는 방

17) 제수를 다루는 곳

18) 젊은 참제인과 관리인 방

19) 무진장재 : 경북 문화재자료 제152호(1985년 지정), 봉화금씨문중. 1480년 사찰 개축. 백암재사 : 경북 문화재자료 제303호(1995년 지정), 선성김씨문중, 17세기 초반 건립. 남흥재사 : 경북 민속문화재 제28호(1981년 지정), 영양남씨문중, 1500년대 사찰 개축. 고성이씨재사 : 경북 유형문화재 제23호(1973년 지정), 고성이씨종중, 1600년경 건립.

20) 안동을 중심으로 한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속함.

21) 함포재사(咸浦齋舍) : 1893년 중건, 안동권씨 제곡 문중,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505 소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55호, 2003년지정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ㅇ 경북북부 지역 재사는 규모가 크고 누각과 함께 이루어진 집중적이고 폐쇄적인 ㅁ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ㅁ자형 평면구성이 이 지역 상류주택과 유사함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는 경남과 호남 지역의 단순하고 개방적인 구성과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빈동재사는 이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 ㅇ 기단은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자연석을 바른층과 허튼층으로 혼용하여 흘림기단으로 쌓고 막돌 덤벙 초석을 놓았다. 흘림 기단은 18세기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 기둥은 반중층의 건물고에 맞게 높은 각주 통재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납도리를 얹고 모두 3량 가로 가구한 민도리 집이다. 이 재사와 같은 ㅁ자형 건물의 가구 구성은 본채는 5량, 양익사는 3량으로 하여 꺽임부 높이차에 따라 결구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전체를 3량으로 한 점은 드문 예에 속한다. 누마루와 우익사 상부 보는 중앙으로 휘어 오른 곡재로 천장을 최대한 높게 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적 개방감을 도모하였다. 누마루 상부는 유일하게 종도리에 장혀를 수장하고 보위에 놓인 작은 방형 판대공과 동자대공에 첨차형 초각 부재를 끼워 다른 공간과 차별성을 띠게 하였다. 상부가구 부재 등에는 자귀로 치목한 고식의 전통 수법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 ㅇ 빈동재사 창호 중에는 18세기 이전 건물[22]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의 영쌍창이 여러 개 있다. 누마루 좌측면 3개소와 전면 1개소의 띠장널영쌍창, 유사방 좌측면 1개소의 띠살영쌍창이다. 이들 영쌍창은 문틀 가운데 설주(欞)를 세웠는데, 설주가 창받이와 풍소란 구실을 하도록 했다. 이런 유형은 빈동재사 중건(1753년) 시기 전후 건물[23]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18세기까지 많이 보인 흘림기단의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서산각지붕을 얹었다.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ㅇ 빈동재사는 1753년에 중건한 선성 김씨 (宣城 金氏) 김담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 ㅇ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ㅁ자형 중에서 측면에 누를 둔 재사로 입지조건, 배치와 평면 구성의 지역적 특징과 함께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다. 구조 양식적으로는 중건한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단, 창호, 지붕 형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코쿨·흙등잔대 등은 희소가치가 큰 실례로 재사건축의 양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ㅇ 이러한 가치로 보아 빈동재사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

22)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고려),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55호, 조선 초기) 등, 세로 벽선 :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보물 181호, 17세기 초),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1507호, 17세기 후반) 등

23) 청도 운문사 대웅전(1653년 건립), 상주 옥동서원 강당과 청월루(1716년 건립), 안동 안동권씨 송파재사(1748년 개축) 등

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빈동재사**(奉化 賓洞齋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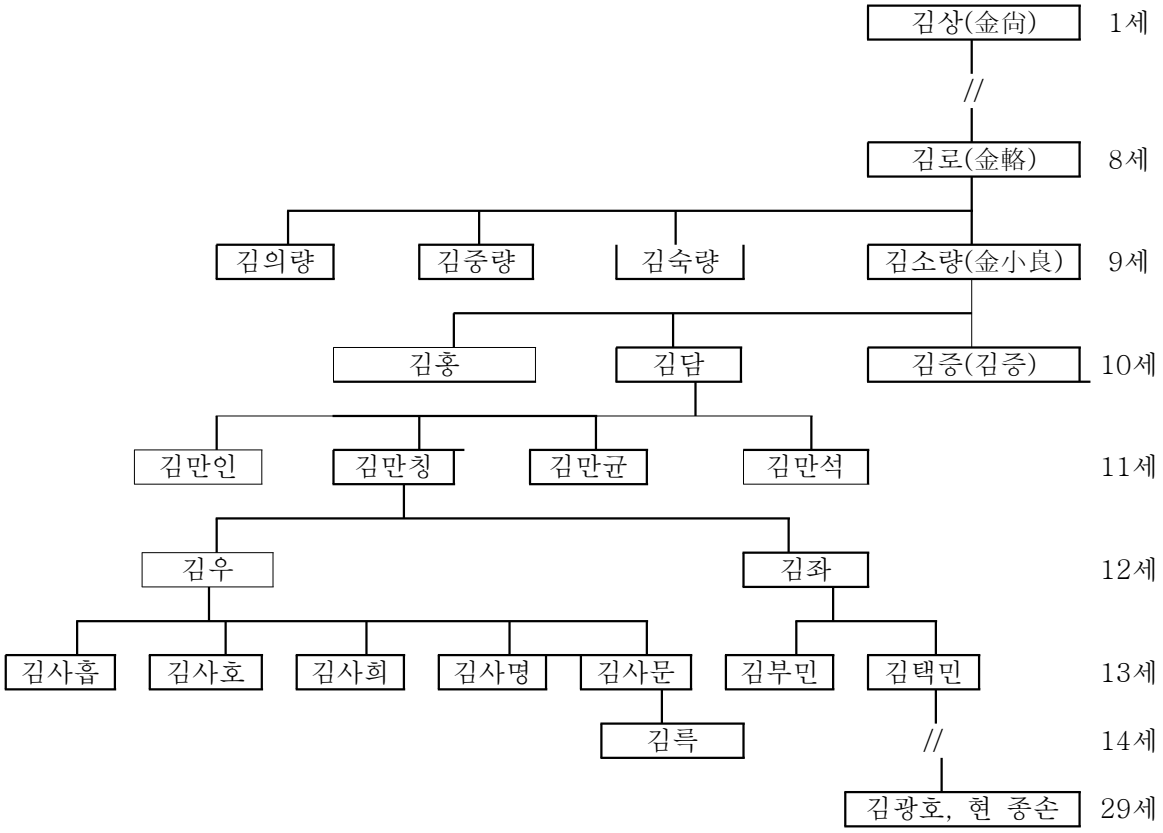
4. **빈동재사의 주인공 김담**

○ 빈동재사(賓洞齋舍)는 조선초기 인물 김담(金淡, 1416-1464)을 추모하고 묘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지은 건물이다. 즉, 빈동재사의 주인공은 김담이다. 김담은 선성김씨로 1416년(태종 16) 영천(榮川, 현재 경북 영주시) 성동리에서 판서공 소량(小良)과 정부인 평해 황씨의 사이에 3남(澮, 淡, 洪) 1녀(聾巖 李賢輔의 외조모)중 2남으로 태어났다. 김담의 부친인 김소량(金小良, 1384-1449)은 선성김씨 시조 김상((金尙)의 9세손으로 영주에 살던 황유정(黃有定)의 사위가 되어 안동 예안에서 영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후 김소량은 3명을 아들을 두었고, 1435년(세종 17) 김담과 그의 형인 증(澮)과 함께 과거에 동반으로 진사로 급제하였다. 담은 그날로 형과 함께 집현전 정자(正子) 겸 경연사경(經筵司經)에 제수되어 집현전에 들어갔다. 김담은 1447년(세종 29)에는 치러진 문과 중시(文科重試) 을과(乙科)에 급제 하였다. 김소량이 아들 김증과 김담은 각각 금산군수, 이조판서 등을 지냈고, 그의 후손 으로는 형참판과 안동부사를 지낸 김륵(金玏, 1540-1616)과 정랑을 지낸 김우익(金友益) 등 만흥 문신과 학들을 배출하면서 영주지역의 명문가문으로 발돋움하였다.

○ 김담이 천문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출사(出仕)한 지 1년 만에 간의대(簡儀臺)에서 천문을 관측하던 이순지가 모친상을 당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세종이 승정원(承政院)에 후임자를 천거(薦擧)하라는 명에 의하여 약관의 나이로 천거되어 그때부터 이순지와 함께 일생을 천문학에 바쳐 세종대 천문학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남겼다.

○ 김담의 관직생활은 집현전과 사간원, 사헌부, 사재감(司宰監), 봉상시(奉常寺), 호조(戶曹), 이조(吏曹)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 때는 외직을 청하여 목민관 생활도 오래 하였고 만년에는 이조 판서에 제수(除授)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일생은 거의 대부분을 천문학자로서 활동하였다. 비단 천문학을 담당하는 직책에만 종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과 관련된 일에는 반드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김담은 이순지와 더불어 세종대의 천문학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다.

<김담의 계보>



○ 당시의 천문학 관련 분야에는 몇 갈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천문관측 기구와 시설을 만들어 정비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천문 관측을 실제로 실시하는 작업이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조선에 많은 천문학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 과업을 추구해 가면서 얻은 지식을 정리하여 책으로 남기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을 것이다.

○ 김담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천문학 과업에 있어서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10년 선배인 이순지와 짝을 이루어 중국에는 이미 알려졌던 천문 계산 방법을 소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완성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겼다. 해와 달, 그리고 5개 행성의 궤도 계산 방법을 터득하여 칠 정산을 완성했던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김담과 이순지가 책임 맡았던 것은『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뿐 이었고, 내편(內篇)은 정인지(鄭麟趾), 정흠지(鄭欽之), 정초(鄭招) 등 다른 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이 내편은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도 완전 소화되지 못했던 수시력(授時曆)을 세종이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을 시켜서 연구케 하고 때로는 세종 자신이 그 구명(究明)에 참여하기도 했다가 후에 새로 얻은 원통(元統)의『대통력통궤(大統曆通軌)』를 이순지와 김담에게 연구시켜서 다시 이를 정리 교정해서『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으로 편찬하게된 것이다.

○ 이런 과정에서 김담과 이순지에 의해『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태양통궤(太陽通軌)』,『태음통궤(太陰通軌)』,『교식통궤(交食通軌)』,『오성통궤(五星通軌)』,『사여전도

통궤(四餘纏度通軌)』의 6권의 책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많은 천문 역서들이 만들어 졌다. 15세기 역법(曆法)을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중국과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조선뿐이었을 만큼 당시 조선의 천문학 수준은 최첨단이었다.

<김담(金淡)·이순지(李純之)가 교정, 편찬한 천문 역서 >

저 자	서 적 명	발 간 년 도			
		편찬시작	완 성	간 행	책/면/활자
김담·이순지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1432년	1421년	1444년	3권 3책. 목활자
김담·이순지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1432년	1442년	1444년	3권 5책. 목활자
김담·이순지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	미상	1444년	미상	1책 80면. 甲寅字.
김담·이순지	『태양통궤(太陽通軌)』	미상	미상	미상	1책 19장. 甲寅字
김담·이순지	『태음통궤(太陰通軌)』	미상	미상	미상	1책 158면. 甲寅字
김담·이순지	『교식통궤(交食通軌)』	미상	미상	미상	1권 1책. 갑인자
김담·이순지	『오성통궤(五星通軌)』	미상	미상	미상	1책 26장. 甲寅字
김담·이순지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	이순지,김담의 발문		1444년 7월	1책 46면. 甲寅字
김담·이순지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	미상	1444년	미상	1책 150면 觀象監 木活字
김담·이순지	『경오원력(庚午元曆)』	미상	미상	1444년	1책 146면. 갑인자
김담·이순지	『선덕십년월오성릉범(宣德十年月五星陵犯)』	미상	미상	미상	1책 31장
김담·이순지	『칠정산외편정묘년교식가령(七政算外篇丁卯年交食假令)』	미상	1447년	미상	1책. 활자본.
김담·이순지	『칠정산내편정묘년교식가령(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	미상	1447년	미상	2권 1책. 校書館 木活字

※ 미상은 세종연간(1418-1450)을 뜻함.

○ 이러한 천문학 분야 외에도 농업분야에서 토지의 측량과 제언 축조, 그리고 왕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부구등지법(田賦九等之法)」을 찬정(撰定)하여 조세법(租稅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현전 전료(殿僚)와 더불어 국어와 음의를 보정해서 올리고, 한유문주석(韓柳文註釋 : 당나라의 문장가 柳種元, 韓愈의 글을 풀이함)을 편찬하고 왕명에 의하여 새로 지은 『역대병요』에 주(註)를 넣어 『역대병요』 13권을 완성하였다.

○ 김담은 1453년 『역대병요』가 완성되고, 1453년 단종 원년 여름에「역대병요」13권을 완성하여 바치고, 그로 인해 중직대부(中直大夫)에 가자(加資)되고, 1454년 가을에 통훈대부에 승진하였다. 1463년(세조 9) 8월에 이조판서에 올랐다. 그리고 1464년 49세의 나이

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호(號)는 무송헌(撫松軒)이고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다. 김담의 호인 "무송(撫松)"은 바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해는 어둑어둑 지려 하는데도 못내 아쉬워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네(影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에서 얻었다. ‘무송’ 즉 “소나무를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인 소나무와 일체가 되기를 염원하는 김담의 곧은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그의 문집으로 무송헌집 6권 3집이 전하고 있다.

5. 빈동재사와 묘소 관리

○ 빈동재사는 1753년 중건한 것으로 「중건빈동재사기(重建賓洞齋舍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전에 작은 재실이 있다고 하나, 언제 건립한 것인는 알 수 없다. 김담이 1464년애 세상을 떴으니, 사후(死後) 약 300년 뒤에 재실이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선성김씨 문중에서는 김담이 죽은 후 4대 봉사(奉祀)를 하고, 묘제(墓祭)로 바뀐 뒤 묘소를 관리하고, 묘사를 준비할 장소로 작은 재실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이 재실이 언제 건립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퇴락하여 문중에서는 중건할 계획을 세운 것이 1751년이다. 이 보다 앞서 1725년에 김담의 조부의 재실인 지동재사를 짓고, 남은 재산으로 김담의 묘소에 필요한 제기와 석물을 사고, 문중토지인 입토를 매입 몇해 동안 재산을 축적한 후 1745년 족보를 재간하였다. 그 다음 빈동재사를 건립하게 된 사정이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라는 현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빈동재사는 김담의 묘소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빈동재사와 김담 묘소는 선성김씨문중(宣城金氏門中)에서 관리한다. 신성(예안)김씨 문중에서도 빈동재사와 관련한 관리는 봉선소(奉先所)에서 한다.

○ 선성(예안)김씨는 황조동 봉선소를 비롯하여 하동, 후동 등에 3개의 소가 있었으나. 2005년 통합하여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宣城金氏三所運營委員會)를 만들었다. 그 목적은 “황조동, 하동, 후동 등 삼소의 재사 · 묘소 · 위토 · 임야 및 여기서 생(生)하는 소득 등 총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와 묘사를 규범있게 봉행하며 나아가 종조돈목의 종풍을 선양함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문중의 토지. 재사 등의 재산과 묘소 등의 관리가 날로 어려워지니 3소가 함께 힘을 모아 관리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 빈동재사는 평소에는 묘소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머물고, 묘사가 있을 때는 문중의 사람들이 제수를 준비한다. 묘사를 지낼 때면 종손과 헌관들이 재사의 상실에 머물고, 부엌 옆의 방은 문중의 연로한 참제인들이 사용한다. 관리인은 평소 아랫방에 머물지만, 제사 때면 젊은 참제들도 이 아랫방에서 함께 머문다.

○ 김담의 제사 때면 과거 100여명 이상 모였고, 2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50~60명 정도 모였다고 한다. 1985년 이후 재사에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재사가 너무 외진 산골에 위치하여 옛날과 달리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따라서 문중에서는 1㎞정도 떨어진 아랫마을에 콘크리트 블록조 집을 새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시제는 기제와 달리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낮에 행하고 농사가 끝난 음력 10월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담의 묘사는 음력 9월 13일에 지낸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재사에서 묘소가 있는 방향으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 제물은 문중의 유사가 재사를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시장에 가서 준비한다. 어물로 족시,

명태, 상어, 대구포 등이고, 채소는 배추, 무,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산나물 등이다. 육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이고, 과일은 사과, 배 등이다. 이외에 밤, 대추를 비롯한 제사에 필요한 물목을 구입한다.

○ 묘사일이 되면 묘소 앞에서 집사분정(執事粉定)을 한다. 집사분정은 대체로 종손과 종친회 회장 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집사분정한 것은 묘소 앞에 둔다. 진설은 과일은 제일 앞줄에 진설하는데 제일 좌측부터 포, 대추, 밤, 배, 사과, 순으로 진설했다. 그 다음 줄에는 나물과 적 탕 종류. 그 다음 줄은 조기를 놓고 양쪽에 떡을 괴어 놓고 중간에 고기를 괴인 것을 놓았다. 마지막 줄에는 고비위(考妣位) 양위에 해당하는 메와 탕을 놓고, 메 앞에 술잔을 놓았다. 시제의 절차는 홀기(笏記)에 따라 참신재배-강신례-초헌(종손) -축-종헌-아헌-삽시-유식 - 철상. 그리고 시제가 끝나면 산신제를 지낸다.

○ 한편 문절공 김담의 불천위제사는 국불천위(國不遷位)제사로 고위(考位)가 7월 9일(음력), 비위는 12월 7일(음력)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무섬마을) 무송헌 종택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다. 불천위와 묘사의 제수비용 일체를 문중에서 마련한다.

6. 조사자 의견

○ 빈동재사는 김담의 묘소를 관리하고, 묘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1753년 중건된 것이다. 재사의 건립시기를 알려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중건빈동재사기(重建賓洞齋舍記)」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 등이 남아 있다. 이 재사가 2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현재도 산성(예안)김씨 문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 방에는 조명시설 겸 난방시설이라 할만한 콧굴이 벽에 설치되어 잇고, 부뚜막 위족에 등잔을 만들어 놓은 것 등은 경북북부지역 산간지대의 전통적인 등화방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이 재사와 관련 인물 김담은 조선초기 세종 때 고가거에 합격하고, 왕명으로 중국을 기준으로 하던 역법을 조선을 기준으로 한 역법 담은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등을 편찬하였다. 이오에도 이순지와 함께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 『태양통궤(太陽通軌)』, 『태음통궤(太陰通軌)』, 『교식통궤(交食通軌)』, 『오성통궤(五星通軌)』,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의 6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15세기 역법(曆法)을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중국과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조선뿐이었을 만큼 당시 조선의 천문학 수준은 최첨단이었다. 김담은 조선이 과학사에 위대한 업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 조상의 묘소를 수호는 재사를 문중에서 관리하고 전통적인 제례 중의 하나인 묘사를 문중차원에서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또한 김담의 국불천위는 종가에서 모시고 있으면, 묘소와 제수비용 등은 모두 문중에서 부담하는 등 문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같이 빈동재사 건물은 18세기 재사 건물로서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콧굴 등 경북북부지역의 특성도 남고 있어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고, 18세기 조상을 숭배하는 방식과 제례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계승하려는 문중의지가 상당히 강하여 문중차원에서 전승할 수 있는 장치로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宣城金氏三所運營委員會)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 빈동재사는 재사가 갖는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 학술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봉화 빈동재사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빈동재사**(奉化 賓洞齋舍)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2

4. **창건과 변천**
   ○ 재사(齋舍)는 묘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시설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등을 장만하는 곳이다. 봉화 빈동재사(賓洞齋舍)는 김담(金淡, 1416~1464)의 재사이다. 김담은 왕명으로 이순지(李純之)와 함께 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초의 역법(曆法)인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을 저술한 인물로 세종대의 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빈동재사는 뒤쪽의 산을 등지고 남향을 하여 위치하고 북쪽에서 연결된 낮은 산이 서남쪽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김담의 묘소로부터는 서측으로 약 100여미터 거리에 있다. 통상, 묘소와 재사, 신도비, 서당(서원)이 함께 자리잡게 되는데 본래 빈동재사 역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으나 서원이 훼철 당하였던 관계로 현재는 재사와 묘소, 신도비만이 남아 있다. 빈동재사의 최초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중건빈동재사기(重建賓洞齋舍記)」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의 기록에 의하면 1753년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에 당초 규모보다 확대하여 중건(重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빈동재사의 건립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을 통해 중건 당시의 대략적인 건축적 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상실'1칸, '청1칸', '차실'4칸, '부엌'4칸, '마구'1칸, '대문'1칸, 서측 '누마루'4칸 등 현재의 상태와 대부분 부합됨을 알 수 있어 중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빈동재사는 1991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5. **건축구조 및 양식**
   ○ 빈동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의 상류주택 배치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몸채와 부속채가 완연한 ㅁ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만운동 모선루(중요민속문화재 제80호)', '의성김씨 서지재사(중요민속문화재 제182호)', '고성이씨재사(경북 유형문화재 제23호)', '남흥재사(경북 민속문화재 제28호)', '가창재사(경북 민속문화재 제21호)', '기곡재사(경북 민속문화재 제155호)', '구가암(경북 유형문화재 제283)', '무진장재(경북 문화재자료 제152호)', '백암재사(경북 문화재자료 제303호)' 등과 같이 안동,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재사건축에 통상적으로 누각(樓閣)을 조성하는데 빈동재사 역시 대문 좌측편으로 익사의 형태로 정면4칸, 측면1칸의 누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몸채의 경우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이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 우측에 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역시 다른 지역의 재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빈동재사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몸채는 정면5칸, 측면1칸으로 좌측에서부터 상실1칸, 대청1칸, 안방(차실)2칸, 우익사와 연결된 부엌1칸이 위치하고 있다. 좌익사는 통칸으로 구성된 누각으로 정면4칸, 측면1칸으로 몸채의 상실 전면과 이어져 있으며, 우익사는 같은 규모로 몸채의 부엌과 연결되어 방(전사청방), 부엌으로 되어 있고 몸채 반대쪽에는 대문과 마구간, 아랫방, 부엌이 위치하고 있다. 누각으로 구성된 좌익사를 비롯하여 몸채와 우익사의 각 실 상부에는 다락 공간을 두어 제기 등을 보관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건물의 입면구성으로 보아 대문이 위치한 정면 부속채를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중층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익사 부엌의 부뚜막 윗벽에는 '등잔대'가 있으며, 안방(차실)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코쿨'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는 다른 재실건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빈동재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들이라 하겠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몸채의 상실에는 종손과 헌관이 머물렀으며 2칸으로 구성된 안방(차실)에는 연로한 참제인들이 사용하였고 몸채 반대쪽에 위치한 아랫방에는 젊은 참제인들과 관리인이 함께 이용하였다고 한다.

○ 건물의 구조 양식은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주(方柱)을 세웠는데 기둥 하부에는 그랭이질을 하였다. 기둥 위는 간략한 민도리 형식으로 결구하였으며 처마는 홑처마 이며 지붕가구는 3량가 구조로 맞배지붕을 만들어 ㅁ자형의 네 면을 연결하였으며 정면에서 지붕의 좌우측에 박공면이 보이도록 서산각지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누각의 보와 다락의 보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간 곡재(曲材)를 사용하였는데 누상공간의 개방감과 저장공간으로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 빈동재사의 창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쌍창(靈雙窓)의 모습을 누각과 상실의 일부 창호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상실과 대청사이에 설치한 만살청판분합문의 경우 가운데 설주를 두고 두짝씩 들어올릴 수 있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양퇴칸의 창호 구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상실의 외부 측면벽에 설치한 쌍여닫이세살창의 경우 설주가 소위, 풍소란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빈동재사의 중건시기와도 부합되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청의 배면에는 외여닫이 우리판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빈동재사에서 구조상 특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다. 몸채와 연결된 부엌의 외벽에는 외부에서 2층 다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나무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나무계단은 하나의 통재를 계단형태로 치목하여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매우 소박하면서도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6. 지정가치

○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는 봉화 빈동재사는 선성(예안)김씨 7대손인 김담(金淡, 1416~1464)의 재사로 초창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중건빈동재사기(重建賓洞齋舍記)」와 「빈동재사중건후술회(賓洞齋舍重建後述懷)」의 기록에 의하면 1753년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에 당초 규모보다 확대하여 중건(重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기록들이 빈동재사의 중건 내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존하는 건물의 건축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건축의 구성방식에 있어 몸채와 부속채가 완연한 ㅁ자의 형태를 이루고 또한, 경북 북부지방의 재사건축에서 일종의 토착성으로 볼 수 있는 누각(樓閣)과 몸채에서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이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 우측에 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등은 다른 지역의 재사건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붕가구에서 사용한 곡재(曲材)을 비롯하여 영쌍창(靈雙窓), 우리판문 등 구조상 특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영쌍창의 설주 모습과 형태 등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어 빈동재사의 건축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비록, 서원이 훼철되었지만 재실인 빈동재사와 함께 묘소, 신도비, 문중 위토 등 일련의 요소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보수과정에서 변형된 부분(기단 시멘트몰탈 마감 등)과 상당기간 재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당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으로의 회복과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번호 민속 2017-03-03

3. 안동 하회마을 내 탈놀이 전수관 담장·판문설치 등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탈놀이전수관에 담장 및 판문설치 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탈놀이 전수관 담장 및 판문설치 등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6.10.11)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함'으로 보류되었으나 현지조사 의견 반영이 늦어져 소위원회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였음

○ 2016년도 제6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6.12.13)에서 심의결과 '판문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높이를 1.2m이하로 맞추고 개폐가 용이한 형태로 조정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음

○ 2017년도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17.2.14)에서 심의결과 '판문의 설치 위치, 형태, 높이 등이 어울리지 않음'으로 부결되었으나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으로 보완된 도면으로 재부의함

※ 재심의 요청 사유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특성상 교육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전수관 사용자(하회별신굿보존회)의 요구에 따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4-4 외 1필지(823-1)

(4) 신청내용 : 탈놀이 전수관 담장·판문설치 등

구분	와편담장	판문(단위:m)	비가림시설	전광판	심의결과
당초 5차 (2016. 10.11)	ㅇ규모 L 60, H 1.5 ㅇ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ㅇ마감재 한식기와	ㅇ규모 1.3 ×2.23 4짝(주출입구) 1.23 ×2.23 4짝(주출입구) 1.725× 1.1 2짝(부출입구) 1.0 × 0.9 1짝(부출입구) ㅇ구조 목구조	ㅇ 규모 A 28.50㎡, H 3.7m ㅇ 구조 경량철골 구조 ㅇ 마감재 동기와	ㅇ 규모 5.24m×3.44m ㅇ 구조 LED ㅇ 마감재 스틸위 우드필름마감	보류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함
자문후 6차 (2016. 12.13)	변경없음	ㅇ규모 1.23 ×1.6 4짝(주출입구) 1.155 ×1.6 4짝(주출입구) 1.725 ×1.1 2짝(부출입구) 1.0 ×0.9 1짝(부출입구) ㅇ구조 목구조	ㅇ 규모 A 28.50㎡, H 3.7m ㅇ 경량철골 목재피복 ㅇ 한식기와	변경없음	조건부가결 판문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높이를 1.2m 이하로 맞추고 개폐가 용이한 형태로 조정한 후 시행
1차 (2017. 2.14)	변경없음	ㅇ규모 -판벽 2.6×2.4 2개소(주출입구 옆) -판문 1.23 ×2.4 4짝(주출입구) 1.725 ×1.1 2짝(부출입구) 1.0 ×0.9 1짝(부출입구) ㅇ구조 목구조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결 판문의 설치 위치, 형태, 높이 등이 어울리지 않음
재심의 요청	변경없음	ㅇ규모 1.3 ×1.8 4짝(주출입구) 1.23 ×1.8 4짝(주출입구) 1.725×1.1 2짝(부출입구) 1.0 ×0.9 1짝(부출입구) ㅇ구조 목구조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7. 5. 23)

ㅇ 하회마을내 탈놀이 전수관 주변 스테인레스 난간을 와편담장으로 교체, 탈놀이 전수관 출입문 및 지하공연장으로 내려가는 출입문에 판문을 설치하고, 지하공연장으로 내려가는 동측 계단 상부에 비가림시설 설치, 1층 내부 공연장 무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내용임

ㅇ 본시설은 공연시설과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로 신청내용은 내부 도난방지 및 화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04

4. 안동 하회마을 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36-1

(4) 신청내용 : 현수막 게시대 설치

○ 규 모

- 1안 : 가로형 현수막 걸이대(가로×높이) 6,520mm×5,745mm, 콘크리트 타설
- 2안 : 세로형 현수막 걸이대(가로×높이) 1,940mm×6,500m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7.5.23)

○ 안동 하회마을 내 종합안내소 맞은편 도로모퉁이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가로형 현수막 게시대를 주변경관에 조화롭게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수막 게시대의 재질, 규모 등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장소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에 맞는 안 제출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7-03-05

5. 안동 하회마을 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13번지 5호

(4) 신청내용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 건축면적/높이 : 19.2㎡/ 4.85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한식기와잇기

라. 검토의견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위치 검토결과 도로가 상가들과 인접되어 있고, 급회전구간이어서 고통 장애 및 교통 사고가 우려되므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안전사고 우려 등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7-03-06

6.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제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22-12 등

(4) 신청내용 : 도로포장 및 정비

○ 규모 : 2,520m(면적 17,640㎡), B=7.0m, 아스콘포장(황토색)

○ L형 측구

- 낙동강 측면 : B=0.5m, L=2,032m
- 하회마을 측면 : B=0.5m, L=2,540m
- 가드레일설치 : 1,254m

○ 보강토 옹벽설치(하회마을 삼거리 인근 시점부 부터)

- 구역1 : H=2.6~5.6m, L=444m
- 구역2 : H=2.6~3.4m, L=100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2017.5.23)

ㅇ 안동 하회마을 및 안동 병산서원 앞 기존 비포장된 도로 2,520m를 포장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지는 안동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으나 하회마을 내부와 약 3Km 이격되어 있어 마을에서 보이지 않으며, 병산서원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병사서원 지정구역에서 조망됨

ㅇ 신청도로는 병산서원으로 가는 관광객의 차량의 통행이 많고, 병산길 주변에 기존 주택이 있어 도로의 폭을 유지하고, 차량의 교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에서 도로포장 및 정비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설계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것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합동분과(사적,세계,민속) 의결에 따라 처리

안건번호 민속 2017-03-07

7. 영주 무섬마을 내 아도서숙 주변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지정구역 내 아도서숙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 내 아도서숙 주변 정시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로 732-20(문수면)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73번지

(4) 신청내용 : 석축 및 계단 공사

○ 석축정비

- 하단부 : 자연석 석축 설치 H=1,200, L=29.40m

※ 기존 콘크리트 옹벽 철거 H=1,000, L=25.20m

- 상단부 : 자연석 석축 설치 H=1,200, L=29.00m

○ 배수로 정비

- 자연석 석축 설치 H=1,200, L=9m
- 자연석 배수로 설치 W=600, L=9m

○ 계단설치

- 자연석 계단 설치 : W=1,800, L=7.21m

라. 검토의견

○ 사업내용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후 재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7-03-08

8. 제주 성읍마을 내 회전교차로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현상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기존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 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93-3번지 등

(4) 신청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 면적 : 2,310㎡

○ 중앙교통섬높이 16cm, 도로연장 : 0.112Km

○ 토공 : 흙깍기 696㎥, 흙쌓기 21㎥, 사토 726㎥

○ 배수공 : 맨홀인상 2개소

○ 포장공 : 아스콘포장 2442㎡, 녹지대경계석 110㎡, 보차도경계석 22m
사고석포장 207m, 보차도경계석(낮춤석) 51m

라. 검토의견

○ 신청지는 교통의 원활환 운행을 위하여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09

9. 고성 왕곡마을 주변 통신용 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주변 통신용 전주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왕곡마을 주변 통신용 전주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지정구역과 인접~13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콤(주)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

○ 소 재 지 : 강원 죽왕면 오봉 1리

(3) 신청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455-3번지 외 4필지

(4) 신청내용 : 통신용 전주 설치

○ 면적/높이 : 5㎡(각 1㎡)/ H=8m(지하 1.3m, 지상 6.7m)

○ 밑지름 : 0.5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7)

○ 고성왕곡마을 지정구역과 인접한 지역 및 지정구역에서 130m 이격된 도로변에 이동통신용 전주를 설치하는 사항임

○ 통신용 전주 설치 위치가 마을 안길 진입부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철제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를 굴착 후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현재 한국전력 전선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7-03-10

10. 영주 무섬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제 1구역(이격거리 4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로 732-20(문수면)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76번지

(4) 신청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 면적/최고높이 : 2,038㎡/ 3.049m

○ 총모듈면적 : 810㎡(450매) ※ 1매 규격 : 8.006m × 3.6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7.5.23)

○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에서 490m 이격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2,038㎡를 설치하는 사항임

○ 신청지는 지정구역에서 490m 떨어져 있고, 무섬마을의 남측에 있는 낮은 임야에 가려서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므로 신청내용이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1

11.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한개마을 주변 소매점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제 1구역(이격거리 보호구역에서 약26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67번지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면적/높이 : 160㎡/ 7.5m

○ 구조 : 일반철골조, 횡판넬(벽체용), 횡판넬(지붕용)

라. 현지조사의견(전 문화재위원 ○○○/ 2017.5.24)

○ 성주한개마을 지정구역에서 260m 이격된 도로변에 소매점을 신축하는 사항임

○ 신청지는 성주한개마을로 진입하는 남측 도로변에 위치하여 진입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7-03-12

12.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7동)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주변에 단독주택(7동)을 신축하고자 현상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7동)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5구역(이격거리 3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안건은 2017년 2차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보류되었음

※ 1구역(개별심의), 5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식회사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49, 2249-3, 2249-4, 2249-5, 2249-6, 2249-7, 2249-8, 2249-9

(4) 신청내용 : 단독주택(7동) 신축

○ 건축면적 : 442.89㎡(63.27×7동)/ 연면적 : 667.17㎡(95.31×7동)

○ 높이/구조 : 8m, 철근콘크리트구조

○ 벽체 : 노출콘크리트문양몰탈마감, 방수몰탈위현무암가공마감

○ 지붕 : THK 0.7VM 징크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6)

○ 본 지역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으로부서 약350m이격된 지역으로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지 않는 지역임

○ 1구역과 5구역 인접 지역으로 5구역의 경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1구역의 경우가 심의대상임
○ 현재 1구역의 경우 시굴조사 등을 통하여 유구층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문화재경관에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3

13.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2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61 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42㎡, 높이 : 3.2m

○ 구조 : 이동식 목구조, 시멘트사이딩 마감, 지붕 칼라아스팔트슁글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6)

○ 제주 성읍민속마을과 250m 이격된 지역으로 주변에 문화마을이 형성되있고 영주산이 자리하고 있는 환경임

○ 계획도서는 성읍민속마을 주변 가옥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장단변비를 2:1 정도를 고려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 비례를 고려하여 ㅡ자형을 ㄱ자형 또는 =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지붕형태의 경우 다락이 형성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도

로변 등에 수목 차폐 등을 하여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함

○ 건축물의 규모는 50㎡이하로 하고 본 시설물은 기성제품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원지형이 복구될 수 있는 가역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건물 신축시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4

14. 괴산 송병일 고택 주변 창고 증축

가. 제안사항

충북 괴산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괴산 송병일 고택」주변 창고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괴산 송병일 고택 주변 창고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66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농협협동조합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괴산 송병일 고택」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4길 17

(3) 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4길 2

(4) 신청내용 : 기존 창고(연면적 135.24㎡) 철거 후 창고 증축(연면적 161.37㎡)

○ 규모 : 연면적 161.37㎡(1층, 1동), 최고높이 7.1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마감 : 샌드위치판넬(벽체), 우레탄지붕판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7)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주변(66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 가로(16.3m)×세로(11m)×높이(7.1m)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임

○ 기존의 노후화된 창고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유사한 규모(연면적은 일부 증가, 135.24㎡→161.37㎡)의 동일 유형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당해 문화재의 경관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5

15.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주변 축사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축사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이격거리 약 4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4구역(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744-1

(4) 신청내용 : 축사 신축

○ 규모 : 연면적 1,520.0㎡(380㎡/동×4동), 최고높이 7.639m(1층)

○ 구조 : 일반철골조, 경사지붕판넬

○ 마감 : 칼라시트철판(벽체), 칼라강판(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7)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424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4구역 내에 가로(8.6m)×세로(20m)×높이(7.6m) 규모의 우사를 설치하는 사항임

○ 우사 설치 예정 장소 주변과 당해 문화재와의 사이에 기존의 축사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축사 내 오·폐수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관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6

16.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봉화 쌍벽당 종택」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촌리 쌍벽당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5구역으로 일부 사업내용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동 안건은 2015년 4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심의 결과 "정자의 규모와 위치, 연지의 형태(트렌치 조사 실시)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허가기간(2015.6.10~2016.6.10) 내 사업을 못 마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봉화군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봉화 쌍벽당 종택」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8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일원

(4) 신청내용 : 관광자원화사업

구 분 / 항 목	당초 허가 사항 ('15년 4차 민속분과 회의)	금회 신청 내용	비 고
마을 안길 포장	9,033㎡	9,732㎡	심의대상 (도로)
토석 담장 설치	1,712m	1,758.1m	심의대상 (1구역)
가로등 설치	20개	20개	심의대상 (공익시설물)
공원 조성	4개소 (정자2개, 연지3개소)	4개소 (정자3개, 연지3개소)	심의대상 (공익시설물)
가옥 철거	4가옥(417㎡)	4가옥(417㎡)	비심의대상

* 거촌리 쌍벽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청 허가사항

라. 관계전문가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 2015. 5. 28)

ㅇ 쌍벽당 옆에 위치한 수온당(시도지정문화재) 앞의 정자는 전방 시선상 최대한 벗어난 곳에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고, 연지의 형태는 트랜치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나머지는 도서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7

17. 봉화 만산 고택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봉화 만산 고택」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봉화 만산 고택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며, 도로 개설은 개별 심의사항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동 안건은 2017년 제2차 민속분과위원회 부결(4.11)

- 마을 전체를 고려한 군도시계획도로와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봉화군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였던 바, 금회 군계획도로 추가 설명자료가 제출되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봉화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봉화 만산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의양리 256-11 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군계획도로(B=6.6m, L=113.0m) 개설

(가) 우수공

○ L형측구(H=0.2m,L=194.5m)

○ L형옹벽식측구(H=0.7m,L=22.0m)

○ 배수관(D400mm,L=215.0m)

(나) 오수공 : 오수관 (D200mm,L=114.0m), 맨홀3개

(다) 상수공 : 상수관(D80mm,L=117.0m), 제수변2개소

(라) 포장공 : 아스폰포장(B=6.6m,L=113.0m)

라. 검토의견

○ 당초 군계획도로를 요구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였던 바, 금회 군계획도로 추가 설명자료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주변 기개설된 도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 2017.3.31)

○ 도시계획에 따라 만산고택 서쪽에 동서로 능선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설치하는 건임. 과수원을 관통하여 기존에 없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유적의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마을 전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7-03-18

18.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5동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주변 단독주택 5동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5동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3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 동 안건은 2017년 4월(2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심의 결과 "대지 조성을 위해 다량의 절성토가 필요하므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사항을 절성토 범위를 조정하고 조경식재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22-1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5동 신축

○ 규모 : 연면적 499.35㎡(99.87㎡/동×5동), 최고높이 5.2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

○ 마감 : 적벽돌쌓기(벽체), 한식기와잇기(지붕)

라. 관계전문가 의견(문화재위원 ○○○ / 2017.03.24)

○ 고은리 고택으로부터 약 350m 이격된 임야지역에 건축면적 99.87m^2 규모의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사업임.

○ 사업 신청지는 총 6,600㎡ 규모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된 경사지이며 자연수림이 존재함.

○ 사업 신청지와 고택 간에는 능선과 자연수림이 있어 시각적으로 차단되기는 하나,
- 대지 조성을 위해 다량의 절·성토와 절개 사면이 발생하며 H. 0.5 - 4.9m의 옹벽이 설치됨.
- 사업 신청지가 고택의 주접근로인 국도 25호선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로에서 사면, 옹벽 등 토목 구조물과 주택 등이 직접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7.5.17)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330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지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 조성을 위해 다량의 절·성토와 절개 사면이 발생하고 일정 높이의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당해 문화재로의 주 접근로인 국도 25호선에 직접 노출되는 등 경관에 저해될 것이 예상되어 지난 2017년 2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됨

○ 금번 신청된 사항은 절·성토 높이와 절개 사면을 축소하는 등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검토의견

○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름

사.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7-03-19

19.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7동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주변 단독주택 7동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7동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193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 최고높이 5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이하)

○ 동 안건은 2011년 6월(3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단독주택(1층 10동) 신축이 허가되었으나, 터만 조성하고 건물 신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후 2012년 2월(1차) 기 허가한 1층 주택을 2층 주택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경관저해 우려 등으로 부결된 사항임.

※ 2016년 8월(4차) 민속분과 회의에서 단독주택 2동 신축이 허가되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280-10 외 6필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7동 신축

○ 규모 : 연면적 763.09㎡, 최고높이 2동 8.7m(2층), 5동 7.0m(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

○ 마감 : 적벽돌쌓기(벽체), 한식기와잇기(지붕)

라. 관계전문가 의견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6.1.11 >

○ 2011.6월 단독주택(1층 10동) 신축이 허가되었으나, 터만 조성하고 건물 신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ㅇ 2012.2월 기 허가한 1층 주택을 2층 주택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경관저해 우려 등으로 부결됨

ㅇ 2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할 경우 차폐식재를 할지라도 수목으로 완전한 차폐가 될 수 없어 전방의 조망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ㅇㅇㅇ/2016.7.29 >

ㅇ 근린생활시설(1층 창고) : 고은리 208-2

- 대상지는 문화재와 2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와의 사이에 산이 있어 보이지 않음. 경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9m까지 보이지 않으나 신청대상 건물은 5.4m 이므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거리가 있고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등 거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단독주택(2층) : 고은리 208-9

- 대상지는 문화재와 250m 거리에 위치하고 문화재와의 사이에 산이 있어 보이지 않음
- 경관 시뮬레이션에서 10.1m 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건물은 7.2m이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2017.5.17)

ㅇ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193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1~2구역 내에 단독주택 7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ㅇ 신축 부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193m 이격된 낮은 구릉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는 국도25호선이 관통하고 있음. 지난 2016년 제4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동 부지 내 단독주택 2동에 대한 신축[1층(5.4m) 1동, 2층(7.2m) 1동]이 허가됨

ㅇ 이번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은 기 허가된 주택에 비해 높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높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관 저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신축되는 7동의 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당해 문화재의 조망이 예상되는 만큼 차폐를 위한 식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신축주택 주변에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참고사항 : 동일 지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 경과사항

구 분	신청내용			
심의일자	‘11.06.13	‘12.4.2	‘16.2.16	‘16.8.9
사업내용	단독주택 10동 (지상1층)	단독주택 10동 (지상2층)	단독주택 1동 (지상2층)	단독주택 1동(지상2층) 자재창고 1동(지상1층)
건축면적	997.20㎡	764.10㎡	100.82㎡	211.80㎡
연면적	997.20㎡	1,151.7㎡	148.11㎡	291.03㎡
건물높이	1층 5m	2층 8.65m	2층 8.9m	2층 7.2m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부결	부결	가결
	※ 보완 제출된 설계도면대로 시행하되, 기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 문화재 전면 경관 저해	※ 2층의 주택 신축은 문화재 전면 조망성 저해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가 보이지 않도록 조성하는 방안 강구

안건번호 민속 2017-03-20

20.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약 1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농업용 창고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197-4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높이 : 104.31㎡(연면적 : 99.27㎡)/ 7.4m

○ 구조 : 일반목구조/ 시멘트 한식기와 잇기/ 벽체 황토몰탈마감, 전통한옥형태 창호

라. 검토의견

○ 신청지의 허용기준은 3구역(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이며, 신청건물의 높이는 7.4m로 높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신청건물의 내용이 단독주택신축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7-03-21

21. 함양 일두고택 주변 하천 돌담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주변 하천 돌담 난간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하천 돌담난간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2구역(이격거리 약 33m~38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2구역(평지붕 기존범위내 개·보수 허용,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양식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내

(4) 신청내용 : 하천돌담난간 설치

○ 기설돌담난간 보강 : L=719m

○ 난간높이 : 55cm, 기존난간 위 한식기와 설치

※ 기존난간높이 현행유지(훼손부분 보수)

라. 검토의견

○ 신청내용은 하천의 기존돌담난간의 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난간위에 한식기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7-03-22

22. 민속문화재분과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

가. 제안사항

민속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방안을 위임 받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문화재분과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현상변경 허가 사항 등 행정처리 단축 및 위원회에서는 지정 등 중요사안에 대한 집중논의 등을 통한 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2) 신청내용 : 민속문화재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3)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 설치)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소위원회 운영)

- 권한 :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위임받아 사전에 권한범위 지정
- 효력 : 소위원회 심의 결정은 해당분과 문화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봄
- 사후보고 : 해당분과 위원회에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사후 보고

(4) 권한범위

○ 현상변경 허가 사항은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 단, 중요한 사안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 민원해소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허용기준 완화 조정
- 2017년 조정 목표 45건, 현재 약 10건 조정완료

○ 기타 필요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

(5) 구성・운영 방안

○ 소위원회 구성 : 5인 이내(문화재위원 3인, 전문위원 2인)

성명	직급/직위	비고
○ ○ ○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 ○ ○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 ○ ○	문화재위원	민속분과
○ ○ ○	문화재전문위원	민속분과
○ ○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분과

-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추천 및 의견반영 조정 가능
- 현지조사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인력풀 활용

○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 개최 : 홀수달(2번째 화요일)/필요시 수시개최 가능
- 위원장 선임은 소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
- 의결방식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름

(6) 추진계획

○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2016.6.13)로부터 위임받아 즉시 시행
- 2017.6월 :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통보
- 2017.7월부터 소위원회 개최 시행

(7) 기대효과

○ 당해문화재 보존 관리 집중 논의에 따른 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 현상변경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향상

라. 검토의견

○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가 2달에 한번씩 개최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 등 민원 증폭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7-03-24

24. 봉화 서설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봉화 서설당」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봉화 서설당」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설당(奉化 瑞雪堂)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유곡리 554)

○ 소유자 : ○○○

○ 수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3,345㎡<1필지>)

- 건축물 지정 : 2동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봉화 서설당	서설당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9칸×측면5칸, ㄷ자형	380.4㎡	○○○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94.0㎡	○○○
계				474.4㎡	

- 토지 지정 면적 : 3,345.0㎡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	대	3,3455.0	3,345.0	○○○
계			3,3455.0	3,345.0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서설당은 17세기 후반에 지은 집으로 ⅰ)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구성, ⅱ)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ⅲ)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ⅳ)18세기 전후 사대부의 엄격한 품격과 절제된 조형미를 갖춘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양식, ⅴ)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ㅇ 17세기 후반 사대부의 주거건축 시대상과 지역 및 문중 고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서설당은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4대봉사와 묘사가 있으며, 사당에 4대조까지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특히 제례음식으로 시루떡을 하지 않고 절편을 시용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집안에서 전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설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을 올리는데, 전통적인 제례에서 남부지역에서는 떡국을 북부지역은 만두국 올리는 중간지대로 보이는 제례음식이 있다.

ㅇ 과거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에 고사 등을 종손의 모친이 살아계실 때까지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성주고사를 지내던 성주독, , 용단지 등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 집안에 전통적인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ㅇ 서설당은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역사성 · 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서설당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ㅁ자형의 구성방식을 보이나 ㅁ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ㅇ 사당의 경우 팔작지붕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데 외기를 내부가 아닌 외부 처마 아래에서 구성하고 왕지를 짜서 추녀를 걸었으며 그 아래에는 별도의 보조기둥과 활주를 놓아 이들을 받치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팔작지붕의 구성방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건립당시 원형인지 아니면 후에 변경(맞배지붕→팔작지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변형된 으로서만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ㅇ 이와 같이 서설당은 전체적인 공간구성 방법 및 세부적인 가공수법 등에서 18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1993년 11월 30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 지정되어 현재까지 대규모의 변형,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봉화군 의견)

- ㅇ 봉화 서설당은 송암 권채의 증손인 서설당 권두익이 송암정 앞에 있던 건물을 이곳으로 이건하여 구애 이완, 모산 이동완 등과 교류하면서 도의를 강마하던 곳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느 고승이 와서 현재의 자리에 터를 일러주어 정지작업을 한 다음날 다른 곳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본 집터만 하얗게 서리가 내려 좋은 징조로 여기고 서설당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 ㅇ 건축물은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사당에는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위패는 고조부 내외 3위, 증조부 내외 2위, 조부 내외 2위, 부친 내외 3위로 총 10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고 있다.
- ㅇ 봉화 서설당은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를 집지킴이로 두어 고사를 지냈으며 잠방에서 누에를 길러 명주실을 뽑는 등 경북북부 지방의 생활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ㅇ 봉화 서설당은 남동쪽에 사랑영역, 남서쪽 행랑영역, 북쪽에 안채영역을 두고 양 익사로 중문영역과 사랑영역을 연결하여 중앙에 안마당을 형성한 'ㅁ'자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봉화지방에 일반화된 정형적인 방식이고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당의 형식은 경상도지방에 흔치 않은 형태로 같은 문중인 권벌종택 사

당에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며, 가치가 뛰어나다고 보여진다.

○ 이러한 봉화 서설당은 경북 북부지방의 제사, 고사, 생활양식 등 다양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후대로 온전한 전승이 필요하다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지정명칭은 "봉화 서설당 고택(奉花 瑞雪堂 古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Seoseoldang House of Bonghwa(Bonghwa Seoseoldang Goteak)

사. 의결사항

○ 가결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서설당**(奉化 瑞雪堂)

4. **입지현황과 역사문화환경**

○ 서설당은 뒷산을 배경으로 좌우로 길게 자리 잡은 토일마을 가운데 쯤에 위치하고 있다. 집 전방으로는 문전옥답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토일천이 흐르며, 그 너머로는 안산과 조산이 바라보인다. 명당의 조건을 갖춘 배산임수 형국이다.

○ 서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봉화 유곡리 근대한옥'[24]이, 1km 남짓 거리에는 닭실마을(유곡리)과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25]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서설당과 함께 안동권씨 충재파 동미계 일문의 주요한 역사문화환경 요소로 이 지역의 유교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5. **연혁 유래 및 특징**

○ 서설당[26]은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6세손인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송암정(松巖亭)[27] 곁에 있던 것을 고승의 권고에 따라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당시 음력 5월에 터를 닦을 때 아침에 올라와보니 다른 곳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집터에만 눈이 하얗게 내려 있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하여 당호를 '서설당'이라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 배치 >

○ 口자형 몸채가 크게 자리 잡고 그 뒤편 우측에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몸채는 정면의 좌측에는 1칸이, 우측에는 사랑공간이 크게 돌출한 형태이다. 몸채 좌측에는 내측을 두었다. 서설당은 몸채 우측의 내외담이 유일하고 이외는 담장이 없다. 소유자에 의하면 윗대 어른들부터 '이 집터는 담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하여 쌓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사당도 여느 집과 달리 별곽으로 구성하지 않고 담장 대신 전방에 시선 차단을 위한 대나무를 심어 간접적으로 구획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태다.

---

24) 등록문화재 제218호

25) 명승 제60호

26)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04호(1993년 지정).

27) 남서쪽으로 500여m 정도 떨어져 있음.

< 본채 >

○ 중문간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편에 ㅁ형 안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다. 안마당에는 장독대와 화단이 좌우로 자리 잡고 있는데, 화단은 후대에 새로 조성했다. 안채의 본채는 가운데 3칸통으로 크게 차지한 안대청 좌측에 고방이 있고 그 옆에 안방과 부엌이 뻗어 좌익사를 이루고 있다. 안대청 우측에는 상방을 배열하고 그 앞으로 통래간과 고방을 두어 우익사를 구성했다. 안대청 좌·우 보꾹 밑에는 더그매가, 안방 뒤 고방과 안방 및 상방 부엌 위에는 다락이 있다. 안대청 좌 또는 우측에 고방을 두고 안방을 익사에 배치하는 안채 공간구성은 이 지역과 인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지역성을 잘 보여 주는 예에 속한다.

○ 한편 안대청 좌측 고방 전면 마루의 청판 구성이 안대청과 다르고, 툇보 밑면과 그 하부 귀틀·고방 쪽 중방 등에 남아 있는 홈 흔적으로 보아 후대에 개변을 엿보게 한다. 만약 이 곳이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면 바닥으로 보아 고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안방에서 안대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반적 동선 체계와 다른 아주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주목된다.

○ 사랑공간은 좌로부터 큰 사랑방·책방(빈소방)·사랑대청 순으로 놓이고 큰 사랑 방 뒤쪽에 두 개 방이 있다. 두 개 방 중 좌측 방은 내외를 고려한 통과 공간으로 안채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면 3칸에는 툇마루를 들이고 그 앞쪽에서부터 대청 배면에 이르는 쪽마루를 설치하고 정면에만 평난간을 꾸몄다. 사랑대청과 책방 사이의 좌측 개구부에는 한 짝의 큰 들어열개 맹장지문을, 우측 개구부에는 출입 외여닫이 문이 달린 2분합 들어열개 맹장지문을 설치하였다. 이런 청방간 개구부의 창호 형식은 이 건물의 이건 시기인 17세기 전후한 건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 중문간채는 2칸 중문간 좌측으로 헛간 · 아랫방 ·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2칸 아랫방은 원래 잠실과 고방이었으며, 헛간 위에는 유상고를 두었다. 중문간은 좌측 중문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어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안마당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는데, 여느 집보다 내외 구분이 엄격함을 엿 보게 한다. 몸채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른 내외법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부터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집이 이에 속한다.

○ 본채와 양익사를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자연석을 흘림기단으로 쌓아서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장혀수장 민도리집으로 꾸몄다. 흘림 기단은 18세기 이후부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안대청의 정면은 특별히 방형으로 초석을 치석하고 정·배면 기둥에만 안쪽을 초각하고 바깥은 직절한 보아지를 끼워 돋보이게 하여 품격을 높였다. 본채는 5량 가, 양익사와 중문간은 3량 가로 구성하였다. 안대청 상부의 5량 가는 꾸밈새의 안정감을 주는 3분변작으로 양봉을 끼운 동자주를 세우고, 대량 위에는 동자대공이 종도리를 받게 했다. 옥개부는 홑처마로 구성하고 본채의 내림마루와 좌익사의 용마루가 연결되도록 지붕을 얹어 정침 배면의 지붕이 반박공지붕의 서산각 지붕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경북북부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기둥·보·도리 등의 자귀질, 안방의 외짝 굽널 정자살문의 넉넉한 살대간격, 통래간

의 통둔테 등은 오랜 역사와 기울인 공력이 큼을 읽게 한다.

○ 사랑공간은 자연석 쌓기 한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안대청처럼 초각한 보아지를 끼운 방주를 세우고 안대청보다 격이 높게 소로로 수장하였다. 대청 상부가구는 삼분변작한 5량 가로 대들보 위에 양봉을 끼운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합각부 아래는 충량을 대량 위에 걸치고 외기틀을 얹었는데, 충량 상부에 동자주를 초각하여 눈에 띄게 하고 그 안쪽에 눈썹 반자를 설치하지 않은 보기 드문 모양새다. 추녀 양측 모서리에는 선자연으로, 툇마루 상부는 우물반자로 꾸며져 있다. 툇마루 좌측 출입문 상·하 모서리의 고식 철원산, 사랑방 정면 띠살과 사랑대청 울거미널 창호의 아래·위틀의 통문받이턱, 평난간 상방의 아주 긴 통재 사용, 툇마루 상부의 우물반자 등을 통하여 이 집의 높은 격조를 읽을 수 있다. 특히 5칸 길이의 난간 상방은 사랑공간의 유의미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라 여겨지는바 숨은 위상을 엿보게 한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안채보다 높게 얹어 사랑공간의 위용이 드러나게 하였다. 사랑공간의 지붕이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솟아서 위용을 드러나게 한 시기는 17세기 이후부터다.

< 사당 >

○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툇집으로 정면은 주간 크기가 같고, 측면은 정칸이 좌·우 협칸보다 조금 넓다. 정면의 정칸에는 쌍여닫이 굽널띠살, 좌·우협칸에는 외여닫이 굽널띠살문을 달고, 나머지는 창을 설치하지 않은 감실형으로 구성하고, 내부는 통칸 마루바닥을 깔고 신위를 모셨다. 정칸의 두 짝 창호는 굽널 높이를 좌·우 협칸보다 낮게 하였는데, 이는 실내의 밝기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 기단은 비교적 큰 장대석으로 완경사지 지형에 따라 정면은 두 벌대 나머지는 외벌대로 쌓고 방형 초석에 모두 원주를 세웠다. 이외에도 활주가 있고, 또 좌·우측면에는 각각 3본씩 6본의 세장한 외진기둥이 있다. 외진주 6본은 이 건물의 독특한 합각가구에 따라 별도로 도리를 두고 이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합각지붕을 전형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측면 기둥에 헛첨차 같은 부재를 결구하고 그 위에 외목도리처럼 가구하였다. 정면은 원주 상부를 외1출목 물익공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배면은 주두 위에 쌍소로 수장만 하였다. 쇠서형 익공으로 하지 않고 물익공으로 한 것은 사대부로서의 엄격한 품격과 절제된 조형미를 갖추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가구는 5량 가로 합보 대량 위는 초각한 동자주익공과 행공을 끼운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있다. 종보 상부는 중앙에는 파련대공이, 양측면에는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했다. 처마는 정면만 겹처마로 격식을 높이고 나머지는 홑처마로 꾸미고 팔작지붕을 얹었다. 팔작지붕의 좌·우측면은 앞서 살펴본바 짧게 구성한 합각부로 인해 내민 지붕면이 상당히 짧다. 사당은 엄숙한 공간 기능에 따라 거의 대부분 맞배지붕임에 비추어 볼 때 비정형적으로 가구한 합각지붕은 아주 특이한 형식이다. 이와 유사한 지붕구성을 한 사당을 인근 닭실마을에 소재한 같은 문중의 안동권씨 충재고택(冲齋故宅)[28]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28) 충정공 권벌(1478-1548)의 유적지로 안동권씨 충재파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 유림에서 명문가로 자리 매김하였다. 장자 동보계(東輔系)와 차자 동미계(東美系)로 분지되었는데, 서설당은 동미

인근 삼계서원의 사당도 여느 서원과는 달리 팔작지붕이다.[29] 팔작지붕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 맞배보다 고격으로 여겨진다는 문중의 특별한 관념적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지붕뿐만 아니라 기단과 초석 형상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문중만의 독자적 고유성을 지닌 귀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부재 곳곳에는 가칠 단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

6.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 서설당은 17세기 후반에 지은 집으로 ⅰ)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구성, ⅱ)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ⅲ)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 ⅳ)18세기 전후 사대부의 엄격한 품격과 절제된 조형미를 갖춘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양식, ⅴ)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 서설당은 17세기 후반 사대부의 주거건축 시대상과 지역 및 문중 고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에 해당된다.

29) 권벌(權橃)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88년 창건. 대원군 때 훼철되었다가 1951년에 복원.

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민속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서설당**(奉化 瑞雪堂)

4. **서설당의 건립과 가계**

○ 이 집은 서설당(瑞雪堂)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송암정(松巖亭) 앞에 있었던 것을 1708년(숙종 34)에 지금의 자리로 이건(移建)하였다고 한다. 권두익은 유곡리에 처음 터를 잡은 충재(沖齋) 권벌(權橃, 1478-1548)의 5대손으로 송암정 앞에 살고 있다가 지나가던 고승이 "이 집 터는 여가 아니다 울로(위로) 올라가라"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당시 음력 5월에 터를 닦을 때 아침에 올라와보니 다른 곳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집터에만 눈이 하얗게 내려 있어 상스러운 징조로 여겨 집을 짓고 당호를 '서설당(瑞雪堂)'이라 하였다.

○ 서설당은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두고 있는 배산임수형의 좌향을 하고 있다. 서설당은 마을 집 전체가 이러한 배산임수형의 집터이고 그중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 서설당의 특징 중 하나는 담장이 없는 것인데, 종손 권우붕(權羽鵬,)씨의 말에 따르면 윗대 어른들부터 이 집터는 담이 있으면 좋지 않았고 하여 담을 두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당 앞에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해 전면에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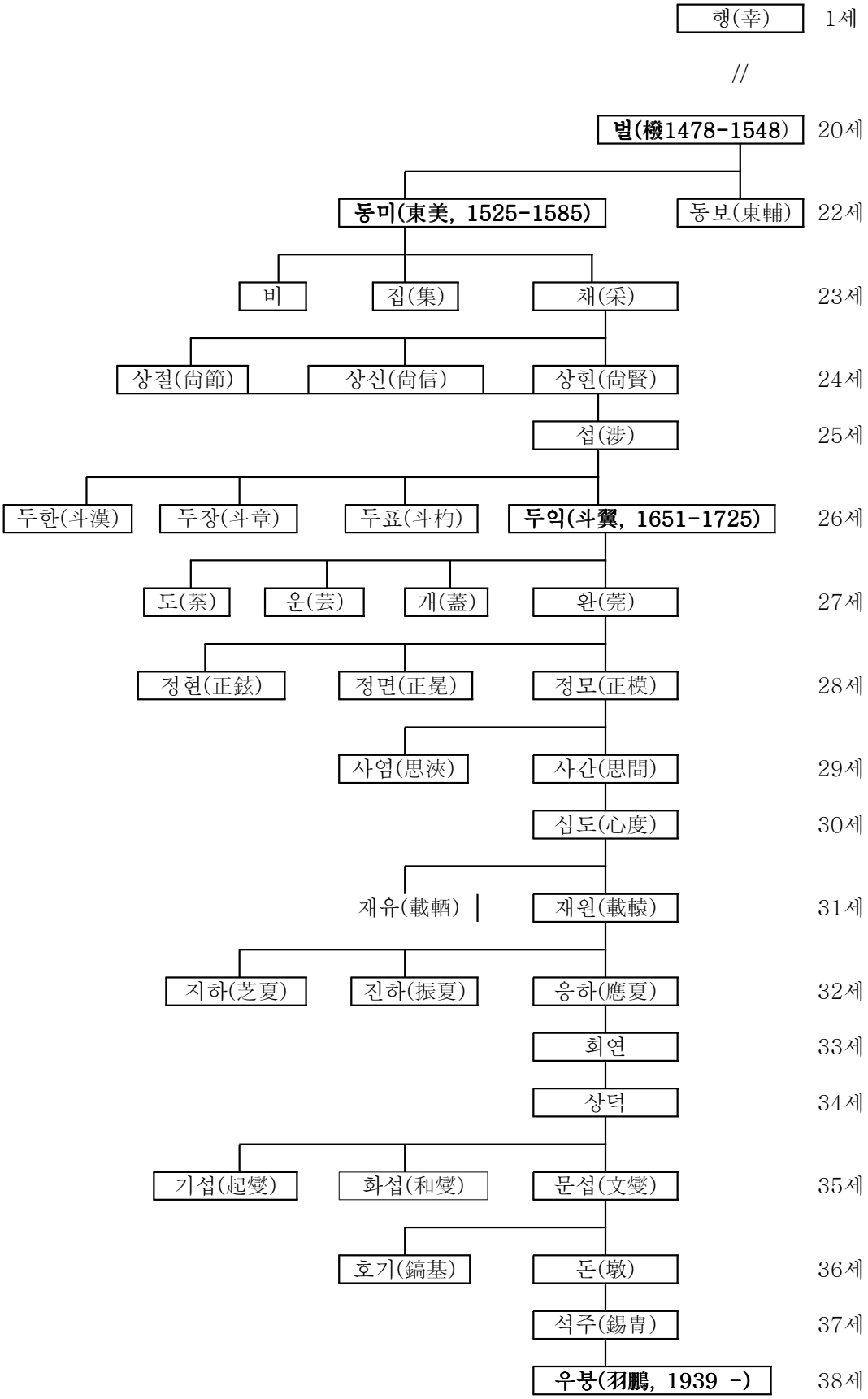
○ 서설당 권두익은 안동 권씨 15계파 가운데 복야공파로 안동(북후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유곡리로 이거한 권벌의 후손이다. 권벌은 1492년(연산군 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07년(중종 2)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료의 길을 걸어 면서 사헌부 지평, 이조정랑, 승정원 동부승지, 도승지, 등 거쳐 1519년 예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당시 훈구파와 사림파가 반목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병을 핑계로 삼척부사로 자청하여 나갔으나,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그가 낙향하여 자리 잡은 곳이 어머니 파평윤씨 묘소가 있는 안동부 내성현의 유곡(酉谷)이다. 유곡은 지금의 서설당이 있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로 흔히 '닭실마을'이라 하며, 권벌의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권벌의 호는 충재 · 훤정 · 송정이라하고, 자는 중허라고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권벌의 호는 '충재'로 유곡리 안동 권씨는 충재의 후손들인 셈이다. 권벌의 후손들은 유곡리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방에 많이 거주 하며, 안동 권씨 충재파에 속하고, 그가 두 아들을 두어 장남은 동보이고, 차남은 동미이다, 이들은 각가 동보계와 동미계로 분파된다.

○ 서설당 권두익은 충재 권벌의 6세손이고, 권벌의 차남 동미계(東美系)이다. 권두익의 고조부 권동미(權東美, 1525-1585)는 150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용궁현감을 지냈다. 그는 혼인을 봉화금씨의 딸과 하였는데, 그의 처된 사람이 키가 커서 시집올 때 안방문을 떼고 들어 왔다고 전한다. 송암정 옆에 오늘날 서설당을 처음 지을 때 안방문을 사랑

방문 보다 크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 증조부 권채(權采, 1557-1630)는 의령현감을 지냈고, 그의 부친 권동미가 신탄강변에 지은 정자인 송암정을 따서 호로 삼았다. 서설당을 이건한 권두익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촌사회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한다. 권두익의 후손들은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향촌사회에서 학문을 하면서 영남학파의 학맥을 이어간 사람들이 많다.

○ 서설당에는 학문을 한 집안답게 많은 전적류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서설당이 인민군의 주재처가 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조금 남아 있었던 자료들도 1998년에 모두 도난당하여 집안의 자료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행(幸) 1세
//
벌(檄1478-1548) 20세
동미(東美, 1525-1585)
동보(東輔) 22세
비
집(集)
채(采) 23세
상절(尙節)
상신(尙信)
상현(尙賢) 24세
섭(涉) 25세
두한(斗漢)
두장(斗章)
두표(斗杓)
두익(斗翼, 1651-1725) 26세
도(荼)
운(芸)
개(蓋)
완(莞) 27세
정현(正鉉)
정면(正冕)
정모(正模) 28세
사염(思浹)
사간(思問) 29세
심도(心度) 30세
재유(載輶)
재원(載轅) 31세
지하(芝夏)
진하(振夏)
응하(應夏) 32세
회연 33세
상덕 34세
기섭(起燮)
화섭(和燮)
문섭(文燮) 35세
호기(鎬基)
돈(墩) 36세
석주(錫胄) 37세
우붕(羽鵬, 1939 -) 3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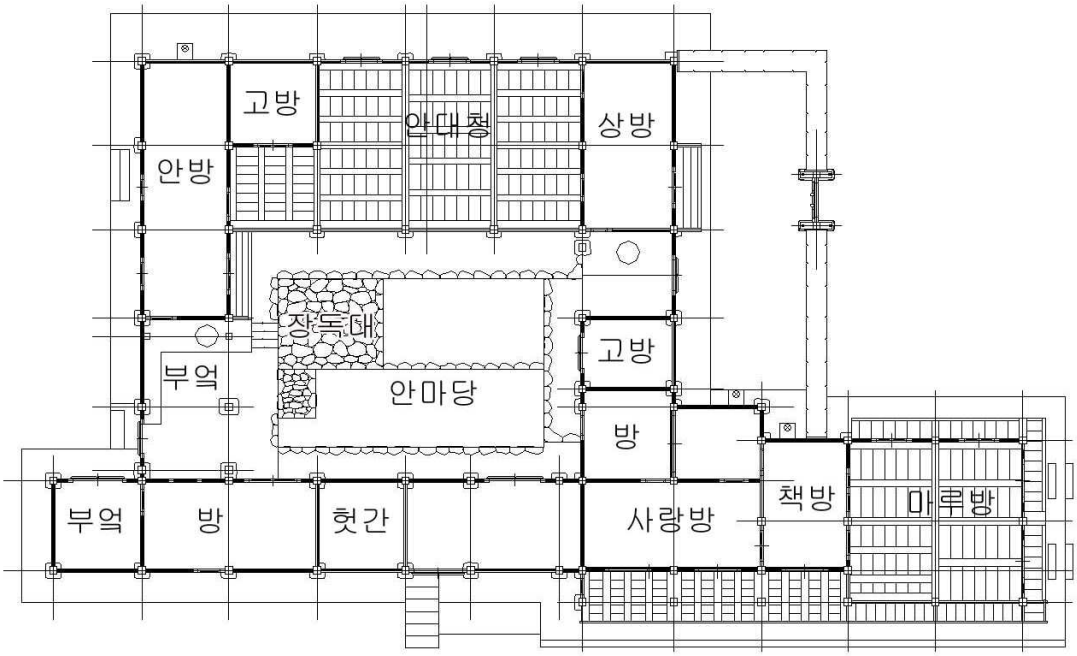
5. 주거생활

○ 서설당 거주공간은 대문채, 안채, 사랑채 등이고, 사당은 본채의 우측 뒤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반의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 대문채는 사랑채와 '一'자로 이루었고 부엌, 고방, 마굿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으로 2칸 마루방에 이어 전면에 툇마루를 둔 사랑방과 책을 보관하던 책방이 있다. 사랑방과 사랑방의 뒤에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방 뒤에 고방이 이어지고 있다.

○ 안채는 안마을을 향해 전면이 개방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은 상방, 부엌, 고방을 사랑채와 연결하였고, 우측은 대청에 붙은 고방과 안방, 부엌이 대문채와 연결되어 있다. 서설당의 거주공간은 이용과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설당 배치평면도

(1) 대문채

○ 대문채는 2004년 종손 권우붕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마굿간과 고방의 벽을 터서 일부는 헛간으로, 외양간 일부와 방에 화장실과 입식부엌을 봉화군청에 신청하여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 종손이 내려와 살려고 하니 부엌과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명절에 서울의 자녀들이 내려왔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 내부시설을 변경하였다. 개조하기 전의 고방은 '과방'이라 하여 집안에 결혼 또는 제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보관하던 방으로 사용하였으며, 조모 생존시 누에를 키우던 잠실로도 이용되었다.

(2) 사랑채

○ 사랑채는 사랑방, 책방, 마루방 등이 있다. 현재 사랑방은 종손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 2004년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친이 사용하였다.

- ㅇ 사랑채에 자리잡은 책방은 마루방과 사랑방 사이에 있으며, 6.25 전까지 책이 가득하였으나 인민군이 들어와 책을 불을 놓아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이 후 관리 소홀로 도난을 당하였다. 현재 내부에 책은 없으며, 소파만 놓여있다.
- ㅇ 서설당으로 들어서는 입구가 현재는 사랑채에서 우측으로 나 있으나 40년 전에는 사랑채 정면 민가 좌측으로 서설당 주 진입로였다. 예전 진입로와 마당이 만나는 곳에 우물이 있었으나 언제인지 모르는지만 옛날에 하인이 빠져죽어 묻고는 없어졌다고 한다.
- ㅇ 사랑채는 집에 상이 나면 빈소를 차리기도 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책방에 빈소를 차리고 사랑채 칸 너비만큼 여막을 쳤다. 여막은 3년 상이 끝나면 한칸으로 줄이고 3개월 후 담제를 지내고 나서 철거하였다. 3년 상을 치루면 매일 빈소에 아침, 저녁으로 생전과 같이 음식을 올렸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를 지냈다.
- ㅇ 길사는 남자가 죽었을 때 날을 잡아 지내는 것으로 안대청마루에 4대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낸다. 길사를 지내면 4대조의 위패를 묘에 묻는 조매제사를 지내고 묘사로 올린다. 부인이 남자보다 먼저 죽으면 사당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위패 대신 지방을 써서 지낸다.

(3) 안채

- ㅇ 안채는 40년 전 조부가 돌아가신 후 안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명절 때나 자식들이 내려오면 사용하고 있다. 안방은 권우붕의 부친이 40년 전에 내려온 후 기존의 재래식 부엌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입식 부엌을 들여놓아 사용하였다.
- ㅇ 안방에 붙어있는 고방은 살림에 필요한 그릇과 항아리 등의 살림살이가 바닥과 선반에 올려져 있으며, 용단지도 이곳에 있다.
- ㅇ 상방은 안대청 우측에 있는 방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집안의 살림권으로 물려주고 상방으로 옮겨 거주한다. 집안에 아들이 결혼하면 상방에 신방을 차렸으며, 권우붕이 결혼 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고모들이 상방에 거주하였다. 이 후 고모들이 결혼 후에는 부친이 서울에서 귀향한 후 조모님이 상방에 거주하고, 모친이 안방에 거주하였다. 권우붕도 신방을 상방에 차렸으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짧은 기간동안 거주하였다. 현재 상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살림살이를 보관하고 있다.
- ㅇ 안마당의 우물은 50년 전에 조모님이 안마당 장독대 옆에 지하수를 파서 만들어 사용하다 권우붕이 귀향한 후 묻고 상수도를 산밑에 만들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ㅇ 디딜방아가 있던 방앗간이 안채 외부인 안방 옆에 있었으며 이 디딜방아는 동네에 하나 밖에 없던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곡식을 찧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4) 사당

- ㅇ 서설당의 4대조 선조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으며, 4대조 이상인 5대조 위의 선조를 모신공간인 강당이 사당 옆에 있었으나 40년 전에 부친이 없앴다.
- ㅇ 사당 우측에 ‘공서’와 ‘강당’이라 불리는 일자형의 건물이 있었는데 공서는 하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6.25 대 하인들이 집을 나간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강당은 사당 우측에 있던 초가로 4대조 위 선조의 위패를 모시던 곳으로 명절제사 때는 강당에 먼저 차례를 지내고 사당을 지냈다. 40년 전에 부친이 내려오면서 없애고 위패는 선조의

해당 묘에 묻는 조매제사를 지냈다. 사당의 전면에 대나무 숲이 있어 밖에서는 사당이 지붕만이 보이는데 이는 서설당에 외부와 구별짓는 담이 없는 관계로 사당의 시각적 차단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사당에 모셔진 선조의 위패는 10위로 고조부 내외 3위, 증조부 내외 2위, 조부 내외 2위, 부친 내외 3위 등이다.

6. 종가의 의례

1) 제례

○ 서설당의 제례는 4대봉사 하는 기제사와 명절제사가 있다. 기제사는 안대청에서 지내며, 자정이 지나야 지내서 권우봉씨가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낼 때면 졸기도 하였다. 명절제사는 여자가 참석을 못하며, 기제사만 여자가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기제사라도 종가라 하여 친척 20명 정도가 참석한다. 초헌은 종손, 아헌은 동생이나 참석 친척 중 연장자가 올리며, 종헌은 사위나 촌수가 먼 친척이 올린다. 축문은 조부와 부친만 쓴다. 기제사는 5년전부터 서울 아들집에서 지내고, 명절제사는 종택 사당에서 올린다.

○ 사당에서 지내는 제례는 설과 추석 명절 차례로 설은 음력 1월 1일, 추석은 10여년 전까지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중기차례'라 하여 지냈다고 한다. 이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경북 북부 지방의 기후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햇곡식이 나지 않고 중양절이 되어야 햇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중기차례'는 10년 전까지 유지되다 지금과 같이 추석 때 차례를 지내는 것을 바뀌었다.

○ 설이나 추석이 되면 2~3일 전에 가족이 모여 제물을 준비하는데 서설당을 비롯한 봉화 안동 권씨 집안의 제물의 특징은 3~5가지의 다양한 한과를 만들어 올리는 것과 시루떡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이 중 시루떡을 올리지 않는 것에 관해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우봉씨에 의하면,

"시루떡은 전설이 있는데... 우리 종가가 전설이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다실(닭실)에서 종가에서 큰 제사(불천위)를 지내는데 아래, 윗 동네 다 모였는

데 어른들이 한 200명이 모였는데 종이 시루떡을 하는데 생전 시루떡이 되지 않는거야. 상방 어른들이 소리가 뻥뻥 나고 잔소리가 나지 떡이 왜 안되나 하고, 시루떡을 하던 종이 떡이 익지 않아 다급한 맘에 자진을 해서 이 후로 어른들이 시루떡을 하지 말라 했지, 그래서 불천위 지낼 때 가 보면 절편을 해서 주욱 쌓서 올리지... 우리 집도 그래서 시루떡 대신 절편을 해서 올리지."

○ 이러한 이야기가 있은 후 지금까지 유곡리 안동 권씨 후손의 집에서 지내는 모든 제례에는 시루떡을 올리지 않고 절편을 대신 올리고 있다. 떡과 함께 한과는 권우봉씨가 20살 무렵인 조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명절제사와 혼례 등의 큰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하던 중요 음식이었다. 설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을 올리며,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는데 밥그릇에 절편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송편을 올려 제상에 올린다. 이 외에 명태, 상어, 방어, 문어, 돼지고기, 소고기, 조기, 닭,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배추전, 무전, 면(국수), 포 등을 올린다. 서설당에서의 포는 '변포'라 하여 과일 옆에 놓는데 이는 유

곡리 안동권씨 충재공파 집안과 퇴계집안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퇴계집안은 '중포'라 하여 제상의 가운데 놓는 것으로 두 집안의 제상 차림에 차이가 있다.

○ 사당에서 지내는 명절 제사가 되면 종손 가족을 포함하여 인근 친척들이 참석하는데 15~30명 가량이 참석한다. 사당제사는 기제사와 달리 종손이 단잔을 올리고 축이 없이 지낸다.

2) 가정신앙

○ 서설당에서 있었던 가정의 고사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에 대한 고사 등이 있다. 종손의 모친이 살아계실 때까지 모셨지만, 현재 성주고사를 지내던 성주단지는 안방과 고방 사이에 있으며, 용단지는 고방 안에 있다.

○ 성주고사는 성주날인 음력 3월 20일경에 지냈으며, 밤, 대추, 곶감, 명태포, 감주, 백설기를 상에 차려 성주독 앞에 놓고 안주인이 주제하여 지냈다.

○ 칠성고사는 음력 2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설당 뒷산으로 향해 성주단지 위에 샘물을 떠다 놓고 매일 아침에 집과 가족을 위해 고사를 지냈다.

○ 용단지는 안방과 대청 사이 고방 내부에 있으며, 매년 가을 중기(중양절) 때 추수를 하고 나면 햅쌀을 갈아 넣고 간단한 고사를 지냈다. 집안에서는 예부터 "용단지에 쌀이 비면 그 해 농사가 안 된다"라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7. 살림살이

○ 서설당의 살림살이를 보관하는 곳은 안채 고방과 안방과 대청 사이에 있는 고방으로 두곳의 고방에 쌀 뒤주를 비롯한 옹기와 각종 살림살이가 있다. 안마당에 있는 장독대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각종 장류를 보관하는 옹기가 놓여져 있다.

○ 안채 상방 옆 안채에서 사당으로 드나드는 중문 곁에 잠망(蠶網)이 있는데 이 잠망은 조모님이 생존하던 시절에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누에를 키우던 것으로 대문채 고방을 잠실로 사용하여 누에를 키워 실을 뽑아 옷을 지어 입었다.

8. 조사자 의견

○ 서설당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와 관련한 근거 자료는 없다. 하지만, 권두익이 생존한 시기를 보면 300여년이 된 종택이며, 전통적인 주거공간과 가족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없어지면서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과 의례생활 등을 엿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종손 권우붕은 전통적인 주거공간 이용에 관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 전통적인 생활을 한 그의 아버지 시대의 주거공간의 이용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볼 있다.

○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4대봉사와 묘사가 있으며, 사당에 4대조까지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특히 제례음식으로 시루떡을 하지 않고 절편을 시용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집안에서 전하고 있기도 한다. 특히 설에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을 올리는데, 전통적인 제례에서 남부지역에서는 떡국을 북부지역은 만두국 올리는 중간지대로 보이는

제례음식이 있다.

- ㅇ 서설당에서는 과거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에 고사 등을 종손의 모친이 살아계실 때까지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성주고사를 지내던 성주독, , 용단지 등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 집안에 전통적인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 ㅇ 이와 같이 서설당은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역사성 · 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가에서 많이 모시는 불천위 제사가 없다는 점, 많은 고문서들이 분실 된 점은 아쉽다.

봉화 서설당 지정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2.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봉화 서설당**(奉化 瑞雪堂)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

4. **창건과 변천**
   ○ 봉화 서설당은 뒤쪽의 산을 등지고 앞쪽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남향을 하여 위치하고 있다. 최초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데 즉,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6세손인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숙종34년인 1708년에 현재의 위치에 건립하였다는 것과 권두익이 당초 현재의 송암정(松巖亭) 앞에 건립 하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 오늘날의 위치로 옮겼다는 것, 이밖에 권동미(權東美)라는 인물이 송암정 앞에 최초로 가옥을 건립하였으며 그 후 숙종34년인 1708년에 권두익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하였다는 것 등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략 상한연대를 18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서설당은 전체적인 공간구성 방법 및 세부적인 가공수법 등에서 18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본채(안채, 사랑채)와 사당을 포함한 일곽을 1993년 11월 30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연목교체 및 번와 등의 보수공사가 있어 왔고 또한 대문간채 배면에 조적조로 쌓은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안채 좌측면에 정면2칸, 측면1칸의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현 소유자가 거주, 관리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5. **건축구조 및 양식**
   ○ 조선시대 양반주택 내 유교적 종법 질서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 중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의 구분은 중요한 건축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내·외 구분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외담, 내외문의 설치를 통한 시각적인 차단에서부터 안채와 사랑채 공간을 분리하는 가옥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징과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배치방법을 보이게 되는데 서설당이 위치한 봉화지역은 안채와 사랑채, 익랑채, 중문채 등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완연한 'ㅁ'자형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서설당의 경우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좌·우익랑이 'ㄷ'자형으로 배치되고 그 전면에 '—'자형으로 연결된

사랑채와 중문채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ㅁ'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중문채에 설치된 통래칸을 통해 안채(안마당)로의 출입이 이루어지므로 통래칸이 안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나 안채 마당을 사랑 마당보다 높게 축조하여 시선을 차단함으로서 내·외를 구분하였다.

○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안채는 정면6칸×측면2칸의 5량가로 가운데 대청(정면3칸×측면2칸)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 상방, 고방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방과 상방 전면에는 부엌을 두어 익랑채와 연접시켰다.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ㅁ'자형 가옥의 경우 대청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반해, 서설당의 경우에는 안채 중앙에 대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대청과 고방 전면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진입방향에서 볼 때 직각 방향으로 귀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방 전면에 있는 마루는 이와 달리 수평 방향으로 귀틀을 놓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1779년에 건립된 '영주 괴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62호)'의 안채와 사랑채에서도 볼 수 있다. 지붕가구는 5량 구조로 통칸으로 구성된 대청 상부에는 대들보가 통보로 사용되었지만 좌, 우측 방으로 구성된 부분에서는 가운데 기둥(方柱)의 상부에서 전, 후의 보가 맞보로 설치되어 있다. 좌·우익랑은 모두 정면3칸×측면1칸의 3량가로 안채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게 놓여 있으며 좌익랑은 방과 부엌(안방부엌)으로 구성되며 방은 안채의 안방과 벽을 터서 사용하고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여 안방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익랑 역시 방과 부엌(상방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엌 상부에는 상방으로 통하는 다락을 설치하다.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중문채, 우측으로는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중문채는 부엌, 방, 헛간으로 구성되며 부엌은 좌익사보다 1칸 내밀어 배치하고 배면에 판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랑채는 중문의 우측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문채 보다 기단을 높게 처리하여 위계를 표현하였다. 'ㅁ'자형 주택의 경우 흔히 사랑채와 중문의 위치에 따라 '가운데 중문을 두고 사랑채가 좌측에 위치하는 경우', '가운데 중문을 두고 사랑채가 우측에 위치하는 경우', '중문을 측면에 두고 사랑채가 정면에 위치하는 경우'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채의 위치는 사당의 배치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정면5칸×측면2칸의 5량가로 우측에는 정면2칸, 측면2칸은 통칸의 사랑대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정면3칸의 사랑방 앞에는 반칸 규모의 툇마루를 두었다. 툇마루 전면과 사랑대청의 전·후면, 우측면에는 헌함을 둘렀다. 사랑대청의 천정은 우물천정이며, 사랑방 전면의 툇마루 상부에는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5량 구조로 하나의 대들보가 전면의 퇴칸까지 통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들보 상부에는 충량을 놓고 상부의 외기를 받치고 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으로 하여금 종도리를 받고 있지만, 충량 위에서는 살미첨차 형태의 포대공을 사용하여 외기를 받고 있다. 사당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정면3칸×측면3칸 규모로 본채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지붕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와 전면의 툇보가 내부 고주의 몸통에서 맞보형식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내부에

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본채와의 영역의 구분을 위해 설치한 토석담을 제외하고는 사당을 위한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면 어칸에는 쌍여닫이 세살청판문을 달고 양 퇴칸에는 외여닫이 세살청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정면의 외진주 상부에는 익공형식의 1출목 공포를 설치하였고 배면에는 몰익공형태로 장식하였다. 지붕가구는 특이한 건축구조를 보이는데 지붕의 외부 형태로만 보아서는 팔작지붕으로 형태로 보이나, 외기를 내부가 아닌 외부 처마 아래에서 구성하고 왕지를 짜서 추녀를 걸었으며 그 아래에는 별도의 보조기둥과 활주를 놓아 이들을 받치게 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팔작지붕의 구성방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기 상부는 소위, 순각판을 설치하여 추녀의 뒷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어 이것이 건립당시 원형인지 아니면 후에 변경(맞배지붕→팔작지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 소유자의 증언과 보수공사 이력에 의하면 지붕가구에 대한 해체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지정 가치

- ㅇ 봉화 서설당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전체적인 가옥의 구성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한연대를 18세기 초기로 볼 수 있다.
- ㅇ 서설당의 본채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역적 토착성으로 보이는 완연한 ㅁ자형의 구성방식을 보이나 ㅁ자의 구성방식 및 안채 내 대청의 위치 등에 있어서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ㅇ 또한, 대청에 설치하는 우물마루의 경우 통상 진입방향에서 볼 때 직각 방향으로 귀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설당 안채의 대청과 고방 전면에는 우물마루는 이와 달리 수평 방향으로 귀틀을 놓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 ㅇ 사당의 경우 팔작지붕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데 소위, 외기를 내부가 아닌 외부 처마 아래에서 구성하고 왕지를 짜서 추녀를 걸었으며 그 아래에는 별도의 보조기둥과 활주를 놓아 이들을 받치게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팔작지붕의 구성방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건립당시 원형인지 아니면 후에 변경(맞배지붕→팔작지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변형된 으로서만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ㅇ 이와 같이 서설당은 전체적인 공간구성 방법 및 세부적인 가공수법 등에서 18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1993년 11월 30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대규모의 변형, 훼손 없이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이질적인 재료로 증축된 시설(보일러실 등)에 대해서는 원형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7-03-24～28

24～28.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문수관광지 조성사업 시공방법 변경(변경허가) 등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문수관광지 조성사업 시공방법 변경(변경허가) 등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table>
<tr><th>문화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영주
무섬마을
(국민
278호)</td><td>경북
영주시</td><td>영주 시장</td><td>□ 영주무섬마을 주변 문수관광지 조성사업 시공방법 변경(변경허가)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산69-1, 64-1～65-1, 580-2～580-1
○ 허용기준 : 1(개별심의), 2구역(관련법에 따름)
○ 기허가내용 : 문수 관광지 조성
- 주요도입시설 : 윤도박물관, 팔괘숲, 주차장, 무섬리버카페 등
- 허가기간 : 2013.10.10～2018.12.31
○ 변경허가신청내용 : 시공방법 변경
<table>
<tr><th>위치</th><th>당 초</th><th>변 경</th></tr>
<tr><td>탄 산 리 산 69-1</td><td>시드스프레이</td><td>녹생토(t=7cm):541㎡,</td></tr>
<tr><td>탄산리64-1～65-1</td><td>산성옹벽-2
L=56.24m
(H=1.5～5.5m)</td><td>녹생토(t=10cm):299㎡,
조경석쌓기(H=3.0m)</td></tr>
<tr><td>탄산리 580-2～580-1</td><td>산성옹벽-1
L=50.80m
(H=1.8～5.8m)</td><td>녹생토(t=7cm):295㎡,
조경석쌓기(H=3.0m)</td></tr>
</table>
- 변경사유 : 사업부지내 도로 측면 경사지부분이 산성옹벽으로 설계하였으나 터파기결과 암구간으로 판정되어 조경석 쌓기로 변경하여 친환경적 자연경관으로 조성하고자 함</td><td>허가</td><td>‘17.5.8</td></tr>
<tr><td>여주
보통리
고택
(국민
126호)</td><td>경기
여주시</td><td>○○○</td><td>[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개축]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82-17
○ 허용기준 : 1(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td><td>조건부
허가</td><td>‘17.6.2</td></tr>
</table>

<table>
<tr><th>문화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td><td></td><td></td><td>○ 신청내용 : 단독주택 개축
- 기존 주택 및 창고 철거(연면적 137.5㎡) 후 단독주택 1동 개축(연면적 99.43㎡)
· 규모 : 연면적 99.43㎡(1동,1층), 최고높이 5.9m
· 구조 : 조적조, 경사지붕
· 마감 : 치장벽돌(벽체), 아스팔트싱글(지붕)</td><td></td><td></td></tr>
<tr><td>아산
용궁댁
(국민
194호)</td><td>충남
아산시</td><td>아산시장</td><td>□ 아산 용궁댁 주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위치 : 충남 아산시 시전리 484
○ 허용기준 :
- 2(평슬라브 5m 이하 / 경사지붕 7.5m이하)
- 3(평슬라브 8m 이하 / 경사지붕 12m이하)
※ 동 안건은 2016년 2월(1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심의 결과 “이동식 화장실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경관에 어울리는 화장실 건물로 신축”토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허가기간 종료(2017.2.18)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기 신청 내용 그대로 다시 신청한 사항임
○ 신청내용 :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table>
<tr><th>구 분</th><th>사업규모</th></tr>
<tr><td>도고문화
광장</td><td>광장 2,623㎡(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1개소 등 설치)</td></tr>
<tr><td>문화올레길</td><td>황토포장 B=1.5m, L=153m, T=25cm</td></tr>
<tr><td>마을도로
확장정비</td><td>콘크리트포장 L=625m, B=4~6m, T=20cm</td></tr>
</table>
○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2016.1.11.)
- 아산 성준경가옥에서 80m 이상 이격된 지역에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임
- 문화재 전면 80m이상 떨어진 전답에 광장조성, 문화올레길 조성, 마을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것으로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전면에 위치한 이동식화장실이 허용기준을 벗어나 있으며, 문화재 전면 조망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관에 어울리는 화장실 건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마을도로 확장시 2m 이상 절토하여 흄관 배수로</td><td>조건부
허가</td><td>‘17.6.2</td></tr>
</table>

<table>
<tr><th>문화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td><td></td><td></td><td>를 측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화장실은 관리를 고려하여 인접한 마을회관 화장실 사용을 권장함</td><td></td><td></td></tr>
<tr><td>함양
허삼둘
고택
(국민
207호)</td><td>경남
함양군</td><td>○○○</td><td>□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02-3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기허가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층수/높이 : 1층(4.75m)
- 연면적 : 68.40㎡
- 구조 : 경량철골조
- 허가일 : 2017.2.17
- 조건부 허가 내용
● 지붕은 한식 플라스틱기와로 하고 벽체색상은 회색으로 마감하도록 함
- 허가기간 : 2017.2.10～2018.4.30
○ 변경허가 신청내용
- 도면변경 : 평면, 입면 변경
- 건물높이 변경(0.7m 증가)
● 변경전 : 4.75m → 변경후 : 5.45m
※ 건축면적 변경없음
○ 변경사유 :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출입구 변경</td><td>허가</td><td>‘17.5.8</td></tr>
<tr><td>강진
영랑생가
(국민
252호)</td><td>전남
강진군</td><td>㈜○○○(
대표
○○○)</td><td>□ 강진 영랑생가 주변 공동주택(2동)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32-1번지 외 12필지
○ 허용기준 : 4(강진군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심의)
○ 기허가내용
- 공동주택 2동 신축
- 허가기간 : 2017.4.13～2019.6.30
○ 변경허가신청내용 : 단일단지에서 2개단지로 분리, 층수변경, 높이증가
- 1단지(85번지) 층수 기존15층→16층, 동위치 6m이동
- 2단지(86-1번지) 층수 기존 15층→17층, 동위치 3m 이동
<table>
<tr><th>변경전
구분</th><th>건축면적
(연면적)</th><th>층수/높이/세대수</th></tr>
<tr><td>101동
지상 15층</td><td>841.6311㎡
(9,173.4741㎡)</td><td>지상 15층/49.8m /84</td></tr>
<tr><td>102동
지상 15층</td><td>869,3964㎡
(9,579.9544㎡)</td><td>지상 15층/48.3m /89</td></tr>
</table></td><td>허가</td><td>'17. 6. 2</td></tr>
</table>

<table>
<tr><th>문화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부대
복리시설</td><td>184.8㎡
(369.6㎡)</td><td></td></tr>
<tr><td>경비실 등</td><td>57.75㎡
(51.75㎡)</td><td></td></tr>
<tr><td>계단 등</td><td>-
(687.5369㎡)</td><td></td></tr>
<tr><td>합 계</td><td>1,953.5775㎡
(19,862.3154㎡)</td><td></td></tr>
</table>
<table>
<tr><td>변경후
구분</td><td>건축면적
(연면적)</td><td>층수/높이/세대수</td></tr>
<tr><td>101동
지상 16층</td><td>862.7106㎡
(9,314.0321㎡)</td><td>지상16층/50.2m/81</td></tr>
<tr><td>201동
지상 17층</td><td>862,7106㎡
(10,661,1183㎡)</td><td>지상17층/53.0m/94</td></tr>
<tr><td>102동
관리사무소</td><td>59,000㎡
(59,000㎡)</td><td></td></tr>
<tr><td>202동
관리사무소</td><td>59000㎡
(59,000㎡)</td><td></td></tr>
<tr><td>합 계</td><td>1,843,4212㎡
(20,093,1504㎡)</td><td></td></tr>
</table>
- 변경사유 :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의에서 ‘단지 내 군계획도로(소로2-6호선)는 존치하고,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변경허가 신청함
</td><td></td><td></td></tr>
</table>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